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브라이언의 사냥기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영 과

임 순 정

2014년 2월

# 브라이언의 사냥기

게리 폴슨

지도교수 김 원 보

임 순 정

이 논문은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임순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증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4년 2월



## 브라이언의 사냥기 에 보내는 찬사

"실화를 바탕으로 이같이 잘 쓰여진 손도끼 (*Hatchet*) 의 속편과 후속작들은 저자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 Kirkus Reviews

"브라이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은 배경과 줄거리에 잘 들어맞는 산문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위치를 보여 준다."

– Voice of Youth Advocates

# 브라이언의 사냥기

## GARY PAULSEN 의 저서들

Alida's Song • The Amazing Life of Birds • The Beet Fields  
The Boy Who Owned the School  
The Brian Books: *The River, Brian's Winter, Brian's Return, and Brian's Hunt*  
Canyons • Caught by the Sea: My Life on Boats  
The Cookcamp • The Crossing • Danger on Midnight River  
Dogsong • Father Water, Mother Woods • Flat Broke • The Glass Café  
Guts: The True Stories Behind Hatchet and the Brian Books  
Harris and Me • Hatchet  
The Haymeadow • How Angel Peterson Got His Name  
The Island • Lawn Boy • Lawn Boy Returns  
The Legend of Bass Reeves • Liar, Liar, • Masters of Disaster  
Molly McGinty Has a Really Good Day  
The Monument • Mudshark • My Life in Dog Years  
Nightjohn • The Night the White Deer Died  
Notes from the Dog • Puppies, Dogs, and Blue Northerners  
The Quilt • The Rifle  
Sarny: A Life Remembered • The Schernoff Discoveries  
Soldier's Heart • The Time Hackers • The Transall Saga  
Tucket's Travels (The Tucket's West series, Books One through Five)  
The Voyage of the Frog • The White Fox Chronicles  
The Winter Room • Woods Runner

그림책들은 Ruth Wright Paulsen에 의해서 삽화된 것입니다.  
Canoe Days and Dogteam

# 브라이언의 사냥기

## 게리 폴슨

EMBER

이 책은 소설 작품이다. 이름, 인물, 장소와 사건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다. 생존 인물이든 고인이든, 실제 인물과 유사한 경우나 사건들, 혹은 무대들은 전적으로 우연이다.

출판물 저작권은 당해 2003년 Gary Paulsen에게 있음.

표지 제작 저작권은 당해 2003년 Bruce Emmett에게 있음.

판권 소유. Ember사에 의해 미국에서 출판되어, 뉴욕소재 랜덤하우스사의 부서인, 랜덤하우스 어린이용 판권 보유. 원래에는 Wendy Lamb Books사에 의해서 미국에서 양장본으로 출판되었다가 2003년 뉴욕에 있는 Random House 어린이 소설 판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Ember와 출판사 심벌은 Random House, Inc의 등록 상표이다.

저희 웹사이트 [www.randomhouse.com/teens](http://www.randomhouse.com/teens) 로 방문해 주세요.

교육자와 사서 여러분, 다양한 학습 도구가 필요하다면, [www.randomhouse.com/teachers](http://www.randomhouse.com/teachers) 에 들러 주세요.

의회도서관에서는 이 소설의 양장본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Paulsen, Gary

Brian's Hunt / Gary Paulsen. - 초판 p. cm.

개요: 캐나다의 황무지로 비행기가 불시착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16살이 된 소년은 야생으로 다시 돌아와 다친 개와 떠돌이 곰과 친구가 된다.

ISBN 978-0-385-74647-2 (trade)-ISBN 978-0-385-90882-5 (glb)- ISBN 978-0-375-89047-5 (ebook)

[1. 개-허구. 2. 사냥-허구. 3. 곰-허구. ]

I. Title

PZ7.P2843 Bof2003 [Fic]-dc22 2003019477

ISBN 978-0-307-92959-4 (tr. pbk.)

RL: 5.0

미국에서 인쇄됨.

10 9 8 7 6 5 4 3 2

2012 Ember사 초판

랜덤하우스사 어린이용 도서부(Random House Children's Books) 는 1차 개정을  
지원하며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점을 축하합니다.

이 책은 나의 친구이자 편집자인 웬디 램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 1장

다시 그의 세계에 있었다. 돌아온 것이다.

가을로 향하는 한여름에 브라이언은 저 멀리 외딴 황무지, 지금은 고향이 되어 버린 이곳으로 돌아왔다. 카누와 활이 있었고 이번엔 약간의 건조식품과 콩, 쌀, 그리고 설탕도 있었다. 즐겨 마시려고 차를 담은 조그마한 통도 있었다. 간단한 요리도구 세트와 카누 한 가운데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통이 있었다. 통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고 연기를 내어 파리와 각다귀들, 모기를 쫓아냈다. 소금과 후추와, 예전에 없던 특별한 것으로는 성냥도 갖고 있었다. 불이 필요할 때 불을 피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리하려고 모닥불 앞에 앉을 때면 야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게 되었다.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순간이었다.

숲 속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자주 꿈꿨고 처음에는 자신이 꾸는 꿈이 악몽 같았다. 경비행기 안에 유일한 승객으로 앉아있고, 조종사는 죽어 있었고 비행기는 호수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꿈이었다. 갑자기 공포에 떨면서 가끔씩 잠에서 깨어났는데, 숨도 가빠졌다. 비행기추락은 너무나 견잡을 수 없어서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 추락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많이 알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비행기 추락 사고는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같았다. 무서운 속도로 위태롭게 흔들리며 활강하던 비행기는 나무들 사이로 무사히 내려오지 못해, 호수 밑으로 불시착했다. 물에 잠길 것 같았다.—악몽 속에서는 마치 죽을 것 같았고, 다시는 죽지 않으려고 했다.

예전만큼 악몽을 자주 꾸지 않게 되었고, 일상에서는 점차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이런 악몽에 시달리더라도 숲 속에서 일어났던 웃음 짓게 하는 첫 몇 달간의 소중한 기억들도 함께 떠올리게 되었다. 일례로 브라이언과 함께 숲에 들어온 스컹크가 꿈을 몰아낸 것이라든가, 브라이언이 나중에야 알게 된 산벚나무(괘

참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를 너무 많이 먹은 것이라든가, 무릎 꿇어 손으로 먹이를 따먹는 박새 같은 것들이다.

이년 전 만하더라도 어렸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어린데, 고작 16살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노련해졌고 당시에만 해도 어리숙하게 행동했다. —아니지. 그다지 어리 숙한 것도 아니었다. 처음이었다. 그때는 여기가 처음이었지만 이젠 처음이 아니었다.

생각을 멈추고 바깥세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한낮 작은 호수의 동쪽 언저리에는 갈대밭과 물 위에 뜬 수련 잎 아래에 식용용 물고기인 개볼치(북미산 납작한 민물고기)와 블루우 길 (미시시피강 유역산, 송어의 일종)이 있을 것이다. 따뜻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 마리 잡아야 할 것이다. 머리 위로 태양은 높이 떠 있고, 등은 따뜻했지만 전 주만큼 내리쬐지는 않았다. 그 정도는 아니다. 더웠지만 후덥지근하지 않다. 여름은 가고 있고, 가을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아비 새(북미 산 큰 새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람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냄)는 왼편을 향해서 우는데, 괴롭거나 창이나 사향 냄새 같은 것으로 새끼 새를 잃어 버려서 우는 것은 아니다. 새끼 새들은 이제 다 커서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거의 날 수 있게 되어서 처음 앞에서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엄마 새 등에 타지 않아도 되었다.

물에 떠 있는 수련 잎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강둑 상류 덩굴속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움직였고,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크게 났고, 큰 소음이 들려서 다람쥐거나 생쥐일거라고 생각했다. 앞사귀와 흙 위를 지나갈 때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 곰은 움직일 때, 대개 다른 동물보다 조용하긴 하지만 무스(북미 산 큰 사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elk 라고 함)나 사슴 혹은 곰이 지나칠 때는 육중한 발소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카랑카랑한 매의 울음소리나 독수리가 사냥할 때와 암컷과 수컷이 짝을 부르는 소리들. 브라이언은 매와 독수리 울음소리를 아직도 구분할 수 없었다.

늑대의 소리가 아니라 코요테의 소리는 울림이 적어서 외침도 아니고, 울부짖는 소리나 지저귀는 소리이기 보다는 짜증을 내는 소리이다.

브라이언은 전에 커다란 묵은 소나무 옆에서 생쥐들을 사냥하는 코요테를 목격할 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나무에는 밑으로 통하는 구멍이 나 있었는데

데 생쥐들은 구멍을 통해서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었다. 한편에선 코요테가 나무 끝 주변을 뛰어 다니거나 위로 넘거나 해야 했고, 생쥐들은 그저 코요테를 피하기 위해 통나무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다. 코요테는 모든 시도를 다 했다. 숨어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자신이 통나무 안에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큼직한 구멍을 파 보기도 해 보고,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생쥐를 잡으려고 한 시간 이상 갇은 애를 써 본 끝에, 코요테는 마지막으로 통나무 꼭대기에 올라서 한 쪽을 내려다보고, 이어 반대편을 보고, 머리를 들어 브라이언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마치 코요테는 브라이언이 내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짜증난, 완전히 화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브라이언이 느끼기에, 일종의 욕이었다.

사백 야드 위로 난 지점에서는, 한 마리의 무스가 수련 잎이 떠 있는 곳에서 먹고 있었다. 머리를 수면 밑으로 쳐 박아 좁이 많은 뿌리를 끌어 올리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이런 일이 무스에게는 원하기만 한다면 식은 죽 먹기임을 알고 있었다. 카누는 야생에서 동물에게 있어서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 같다.—아마도 동물들은 카누를 통나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그래서 만약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에 있는 동물 바로 옆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게 가끔 가능했다. 많은 주에서는 이런 이유로 카누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브라이언은 한때 동물 옆까지 카누를 몰아 얇은 물가에 서 있던 어린 사슴을 만져 보았다. 그리고 무스에게 먹이를 먹이는 일은 더욱 간단했다. 무스가 머리를 물밑에 박았을 때, 자리를 떠나고, 무스가 물에서 머리를 들어 주변을 둘러볼 때는 카누가 저절로 움직이게 놔두기만 하면 된다.

브라이언은 화살이 많았다. 더 많은 화살을 만들 수 있도록 60개의 여분의 촉과 100개의 화살대와 장비뿐만 아니라 18개의 들판용 촉도 있었다. 게다가 수년 전 군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던 삼중 날 축이 있는 50개의 브로드헤드 축(수렵용 화살촉)과 24개의 브로드헤드 화살도 갖고 있었다.

이들을 MA-s 라고 하는데 치명적이다. 자주 손질 해 주거나, 뼈나 암석에 맞지 않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브라이언은 무스를 보면서 고기의 핏빛 육질을 생각하니 군침이 돌면서, 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고기 생각을 접었다. 무

스는 작은 수컷으로 육백 이나 칠백 파운드 정도 나가고, 천사백이나 천오백 파운드 가량 무게가 나가는 큰 수컷 무스는 이 근처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작은 수컷의 고기도 브라이언이 처치하기에는 많은 양의 고기여서 그가 죽인 동물들의 사체를 헛되이 버려지게 할 수 없었다. 처음 이 숲에 왔을 때 오랫동안 굶주렸다. 식량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버린다는 생각은 몸 안의 모든 본능에 거스르는 행동이었다. 아무리 연기 불을 피우고 고기의 대부분을 가늘게 해서 말린다고 해도 결국엔 고기를 조금이라도 버리게 될 것이다. . . .

계속해서 무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스를 가까이에서, 가깝긴 하지만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었고, 활은 이미 매달려 있었다. 브라이언이 활을 당기기 위해서 아래로 몸을 수그릴 때까지 기다리고 무스의 머리가 보이자마자 어깨 옆구리에 있던 MA-3을 빼어들어 쏘면 브로드헤드는 무스의 심장에 가서 박히겠지 . . . .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행연습은 모든 것이 좋았다.—화살 쏘는 장면을 항상 연습했었고 실제로 동물을 쏘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시연할지 상상의 각본을 만들었다.

카이-가-다우쉬 (Kay-gwa-daush)와 함께 인 것처럼. 브라이언은 자주 그녀 생각을 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숲 속에서 첫 겨울을 보낼 때 알게 된 녀를 놓는 부족인 크리족의 딸이었다. 브라이언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 크리족을 만나 삼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고, 봄이 되자, 한 비행기가 그를 문명사회로 되돌려 주었다.

카이-가-다우쉬 백인 이름은 수잔 스몰 혼 (Susan Small-horn) 이지만 브라이언은 점점 그녀의 크리족 이름으로 그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그녀 생각을 했다. 또래였고, 브라이언의 어깨 높이까지 혹은 조금 더 되는 키에 아몬드 모양 같은 갈색 눈에 미소를 머금은, 말이 많고, 오뎅한 코와 길고, 술이 많고,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을 지녔는데, 이제껏 그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데이빗 스몰 혼(David Small horn )은 브라이언에게 그의 딸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학교를 다니느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브라이언은 그녀가 몹시 보고 싶었다.

시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녀의 크리어 이름이 뜻하는 것으로, 가족들은 그녀가 어렸을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간에 시도해 본다는 의미로 붙여준 이름이었다. 이러한 기질로 인해서 그녀가 네 살 되던 해 고성능 소총을 쏘보려다가 왼쪽 뺨에 작은 흉터를 남기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카누에 앉아 있으면서, 얼굴에 난 흉터가 여자들이 뺨에 난 작은 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미인 점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소총으로 인한 상처가 미인 점으로 둔갑해 버려 엉뚱하다 생각하겠지. 정말로, 그녀는 예뻐고 예뻐서 좋았고, 하지만 그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그녀를 만나, 그의 생각이 어떤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웃는 모습을 생각했다.

스몰혼가의 여름 캠프는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강이 있는 북쪽 지역에서 했는데, 일부 강의 지류가 지금 앉아 있는 지점, 여기에서부터 흘러 아마도 30마일 떨어져 있었다. 스몰혼가 사람들이 어떤 강에 있는지 브라이언은 알지 못하지만 데이비드가 말하길, 북쪽 끝에 있는 큰 섬으로 화살촉 모양이라고 했었다. 그 섬은 거의 육지에 맞닿아 있고 캠프장에서 호숫가로 산들바람이 불고 모기도 거의 없어서 그들 일가는 그 섬에 머물렀다. 바로 그 곳이야 말로 가을에 낚을 놓을 만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그들이 늘 머무르는 여름 캠프 장소였다.

어쨌든 크리족의 캠프지로 향하고 있었고 새로운 지방을 보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강들은 강에서 강을 따라 북쪽과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결국엔 위니펙 호수에서 만나고, 이 호수에서부터 강들은 북쪽과 동쪽으로 흘러 수목 한계선 위쪽으로 난 허드슨 만에 이르게 된다.

그 곳을 보러 갈 마음이었다. 그저 북쪽으로 가자. 남쪽은 도시, 사람들이 있었고, 남쪽 지방 사람들과 해당 지역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생활하는지 재빨리 생각하게 되었다. 남쪽 지방에서는 생활 형편이 좋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못 살았다.

그곳이 바로 남쪽이었다. 못 살고 글러 먹은 남쪽지방. 그리고 북쪽지역은 사람이 이제껏 훼손하지 않은 자연의 지방이었다. 그래서 아비 새와 코요테, 개구리와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으면서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 즉, 수면 위를 비추는 햇빛, 눈부시게 빛나는 석양, 별들이 총총히 박힌 시커먼 하늘들을 매일 밤낮으로 보면서 이런 그만의 세계에서 느긋하게 북쪽으로 향했다.

미끄러진다, 카누가 북쪽으로 미끄러진다고 생각했다. 멈추어 친구들을 보고 카이-가-다우쉬를 만날 것이고 브라이언과 그녀는 그의 생각이 어떤지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있을 것이다.

'흥터로 생긴 미인 점이라.'

'하.'

'그녀가 웃겠지.'

## 2장

햇빛아래 떠 있는 수련 잎 사이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편으로는 먹게 될지도 모를 고기를 찾으면서, 마음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생각하고 있었다. . .

그의 세계, 야생으로 되돌아왔다. 일단 문명사회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도 했건만. 심지어 16살이 되었을 때, 원하기만 하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학교를 관두고 싶지 않았는데 공부를 함으로써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사물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학습에 대해 생각할 때면 '흥, 정말이니, 농담 하지 마'와 같은 말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들렸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에게 있어서 학습의 대부분은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고,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었지 결코 사물을 완전히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최근에 문명사회로 되돌아갔을 때, 책 속에 있는 것들을 닦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 달랑 손도끼 하나로 덩불 속에서 살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닦친 것들에 대해서 애써 알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것들, 심지어 엉뚱한 것까지. 사람들은 거트 열매를 먹는다. 토해 낸다. 거트 열매를 먹지 마라.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사물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 나갔다. 하지만 문명사회로 돌아오고, 살아 돌아왔다는 흥분이 가시고 온갖 TV와 미디어 매체에서 집중적인 선전 세례를 맞고 나서 의사들이 진찰하더니 "정상입니다"라고 확진해 주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숲 속에서 살던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선생님이 역사책 한 권을 건네주면, 그저 복사하고 게티스버그의 전투 날 짜나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시기 정도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숲속에서 사물에 대해 알아나갔던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해 완전히 알고, 이해하려

는 욕구가 강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에 대해 더욱 파악하려 했고, 게티스버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단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역사속의 한 단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오 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단 3일간의 참혹한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상대방을 향해 총알이 빗발쳤고, 심지어 구부러진 총알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총알들은 공중에서 부딪쳐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미네소타 선봉지원병 (the Minnesota First Volunteers)에 대해 알게 되었고, 262명으로 시작한 전투에서 단 47명만 살아남고 나머진 부상당했다. 그리고 알렉산더 그라함 벨 (Alexander Graham Bell) 은 전화기를 발명하지 않았고, 실제 그는 귀가 먼 아이들이 부모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을 뿐이었으며 라이트 형제 (Wilbur and Orville) 보다 앞서서 비행기를 발명할 뻔 했다.

브라이언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깨우쳤다.

지금이야 숲속으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문명사회로 되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고, 결코 그 생활에 맞춰서 살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학교를 싫어한다던가, 학습과 배움의 의미를 등한시해서 사회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다. 두 세상을 한데 합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러고 싶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은 지독한 맛과 냄새가 나는 험악한 세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곤 죄다 틀린 것이라고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저 물질을 원했고, 돈과 멋진 차, 이상적인 여자와 근사한 옷들을 원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참을 수 있었고 그도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문명사회에서 거의 2년간 생활하고 나니, 도시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TV를 시청할 수 없었고, 불협화음의 시끄러운 음악을 들을 수 없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을 참기 힘들었으며 한밤중에도 결코 어둡지 않아서 도시의 네온사온 불빛으로 인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싫어지는 등 극에 달했다. 과부하 상태와 일종의 충격에 빠져서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것, 혹은 사는 척 하는 것,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대놓고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황야 등지에서 스스로 학습해 나갔다. 황야로 올 때 종이표지로

된 책들도 가져 왔는데, 여기에는 역사 한 권, 수학에 관한 책, 자연과 생물학에 관한 책들이 있었다. (이미 이들 중에 몇몇 오류를 발견했는데, 특히, 동물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혹은 동물들이 사고를 한다고 해도 임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다룬 것이었다.) 또한 몇 권은 문학책으로 그 중 셰익스피어 서적은 빠질 수 없는 책이었다. 부모님과 학교 측에 이 모든 책들을 공부하고 난 후,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로 약속을 이미 했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책과 시험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학교 측에선 달랑 손도끼 하나로 54일간 살아남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 손도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학습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를 보며 융통성 있게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자. 멈췄고, 카누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뒤로 노를 저었다. 수련 앞 밑에는 작은 초록색의 통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커다란 북방의 강 꼬치고기(북미·북부 유라시아 대륙 산 강창꼬치속의 물고기: 낚시용)가 한 마리가 있었다. 4파운드, 아마 5파운드는 족히 되어 보였다. 의사 진료실에서 읽었던 어느 엉뚱한 낚시 잡지에서 북방 강 꼬치고기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북방 강 꼬치고기는 Y자 모양의 가시가 몸통 속에서 돌아다녀 생선 가시를 발라내 먹기 좋게 자르지 못해서 식용으로는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고기가 끈적거린다고도 적혀 있었다.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균성 코팅 막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든 고기가 끈적거린다. 브라이언은 이 고기를 요리할 때면, 내장을 꺼내거나 아니면 통째로 나무의 편편한 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쪄이게 한다. 그러면 끈적한 고기의 점액이 보기 좋은 파란 빛으로 바뀌다가 고기 표면에 붙는다. 요리책에서 강꼬치고기를 프랑스에선 *à bleu* 라는 조리법으로 소개한 것을 본 적 있는데 고기를 구워서 특별한 조리법 없이 끈끈한 상태에서 파란색 감도는 고기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 앞 아래에 있는 북방 산 물고기를 보는 것에서 실제로 한 입 먹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이 고기 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단계 약탈자들로 다른 물고기만이 아니라 개구리, 새끼오리, 새끼 아비(아비 속 물새의 총)에다가 심지어 인간들까지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육식 동물

이 그러하듯, 이 물고기도 재빠르고 신중했다. 약탈자들은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상처도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약간의 줄과 갈고리를 가져 오긴 했지만 좀처럼 쓰지 않았다. 활로 고기를 쏘는 것이 훨씬 손쉬웠고 선별적이었는데 깃털 없는 창 손잡이에 삼중으로 뾰족한 갈고리 모양의 생선대가리를 달아 근거리에서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약간 달랐다. 세 개의 날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서 작은 물고기들의 뾰족한 끝으로 잡기에 북방 산물고기는 너무 컸다. 이 세 개의 날은 커다란 물고기 깊숙이 파고들지 못할 것이고 단지 겉 표면에 가벼운 상처만 입힌 채, 물고기가 뒤척이다 사라지면 화살은 떨어지겠지.

물고기 대가리도 관통해 때려죽일 수 있는 만한 단단한 활을 얻어야만 했고 물고기를 잡기에도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카누의 오른쪽에는 수련 잎이 뚱뚱 떠 있었고 북쪽으로 향하는 호숫가에 있었다. 오른손잡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활을 잡아 오른쪽으로 돌려서 쏘는 것이 불편했고, 이렇게 하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도망칠 것이 뻔하다. 만약 카누에서 일어서서 몸을 돌리고 활을 쏘기 위해 반대편으로 서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 카누의 뒤쪽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기어장치와 짐이 있었다. 만약 일어서서 방향을 틀면 틀림없이 물고기들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적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직도 하루 중 이른 때여서 밤이 되어 정박하기 전까진 시간이 많았고 빛도 충분히 비추고 있었다. 노를 매우 천천히 몰고 가면서 카누 앞쪽으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기어가는데 거의 10분이 걸렸고 카누가 방향을 선회해서 반대편으로 돌릴 때까지 느리게 기어가는 속도로 10분이 걸렸다.

지금 행동했던 것 같이, 사냥하는 방법의 대부분이 위장 절차였다. 오래 전에 서두르는 것이 곧 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인내야말로 물고기에서 무스에 이르기까지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사냥의 비법이었다.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북부 지방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있을 때였다. 빙하 속에서 바다표범을 사냥하기 위해서 수시간, 수일동안 바람을 쐬러 나오는 바다표범을 기다리며 웅크리는 이뉴잇족 (캐나다,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

이 있다. 이뉴잇족은 구멍 주면에 깃털과 동물로 뼈로 만든 작살을 준비해 놓고 대기하다 바다표범이 바람을 씌려고 구멍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앞에 놓인 깃털을 날리고 사냥꾼은 작살로 찌르는데 갈고리가 있는 촉을 바다표범의 등에 푹 찔러 넣는다. 바다표범은 400파운드나 무게가 나가고 작살로는 물개를 죽일 수 없지만 작살이 이뉴잇족이 들고 있는 노끈에 달려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이 매우 극적으로 펼쳐진다. 마치 끈 하나로 적당히 무게가 나가는 황소 한 마리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냥꾼은 한 손으로 물개를 잡고 있으면서 사냥꾼 손아귀에서 벗어나 얼음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물개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창을 살피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방법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 사냥꾼은 인내심이 강해서 처음 공격 하고 나서 바다표범이 다시 나타나지 않거나 물개를 놓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저 어깨 한번 추스르고 다음 구멍으로 간다고 한다. 브라이언은 북극곰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다표범을 사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북극곰도 바람 씌러 나온 바다표범을 잡기 위해서 구멍 옆에서 한눈도 팔지 않은 채 기다리고 같은 이유로 곰의 검은 코를 하얀 발로 덮는다. 바다표범이 나오면, 곰은 때려눕히고, 물개의 코를 움켜쥐고, 육중한 300, 400 파운드 되는 물개를 얼음 속 6인치되는 구멍으로 끌고 가 해치우고 바다표범의 내장을 전골 요리로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브라이언은 카누 가장자리 너머 온통 하얀 북쪽을 훑쳐보면서 카누가 끝까지 갈 때까지 좀처럼 노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서부터 살피며 천천히 표류하는 것 마냥, 원목이 뚱뚱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길 바라면서 조심조심 나아갔다.

들어맞은 게 분명하다. 물고기가 움직이려는 순간—등을 활모양으로 구부리고, 아가미를 벌린 채였는데 작은 북방 물고기가 왔고 브라이언은 이런 모든 동작은 영역을 지키려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북방 산물고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 카누는 제대로 정박하였다. 이전보다는 그나마 나은 위치에 있어서 수련 앞이 물고기의 눈을 일부분 가려 주고 있었다.

활은 매달려 있었고, 브라이언은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덜덜 떨면서 나무로 된 활을 부드럽게 슬며시 화살사이로 넣고, 화살을 시위에 메기고 그의 왼쪽

손을 핸들에 얹어 카누 윗머리에 활을 올리고 나서 조금 더 높이, 화살이 카누 옆에 닿지 않게 했다.

다음으로, 옆으로 활을 쏜 채, 화살을 뒤로 당기면서 활을 밀었고, 그의 턱 밑으로 깃털들을 쏘서 넣어 오차를 감안하여 물고기 가장자리를 겨냥하였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난 후 처음으로 사냥했을 때 물고기를 놓친 경험으로 어렵게 얻은 방법이었다. 화살을 당겼다.

마치 수면 위를 다니는 것처럼 화살은 다소 천천히 날아가더니 기세 좋게 북방 산물고기의 오른쪽 눈 위에 꽂혔다. 운이 좋았는지 계획대로 된 건지, 명중해 가까웠고, 머리 넘어 화살대가 내려 왔는데, 이번 활은 물고기의 척수를 끊어 놓고, 북쪽너머 중간쯤에서 멈췄다.

순식간에 죽은 물고기는 죽기 직전의 극심한 경련 증상을 보이다가, 옆으로 몸을 활모양으로 구부리더니, 더욱 수심이 얇은 곳으로 뛰어 들었다. 아마도 5피트는 되는 깊이였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물고기는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나무창이 부력으로 다시 떠오르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 주는 것 같았다.

“아,” 브라이언은 크게 말하며, “물고기가 뜰 줄 알았는데. . . .”

모든 물고기는 공기주머니를 지니고 있어서 수면 속에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물고기가 죽으면, 부레 속에 충분한 공기가 차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가끔씩은 이 북방 산 강 꼬치고기처럼 공기를 배출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브라이언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한 손에 각각 카누를 쥐고 있었는지 옆으로 몸을 돌려 바다로 뛰어 들었다. 시야는 흐려지고 북방 산 고기의 색은 거의 식별하기 힘들었지만 두 눈을 뜬 채 바다 밑까지 내려갔다. 화살자루는 밝은 흰색 선이었다. 북방 산 강 꼬치고기를 움켜쥐고, 카누가 있는 수면 위에까지 끌어 올려 보트 위로 던졌다.

항상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휴 다행이다 싶었다. 다음엔 신이 주신 음식, 넉넉한 식사, 떠올리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빠져 자는 죽은 고기였다.

이번 여름에 고기 음식을 저장할 수는 없었다. 만약 음식주변에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면서 고기를 건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거나, 훈제소실을 갖추었다면, 얼마만의 고기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도 없이 이 늦여름

의 더위 속에서 고기를 장시간 동안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만약 보관하려고 하거나 상한 고기를 먹었다면 이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1930년대 시절 농부, 사냥꾼과 뒷사냥꾼들을 위해 주정부가 발간했던 책을 찾았다. 책은 다른 동물들을 기르고 도살하며 저장하는 방법들을 각 고기류에 따라서 분류하고 기술해 놓았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슴고기, 특히, 무스 고기는 단백질 함량과 영양가가 매우 낮은 반면, 토끼는 영양가가 가장 높다는 사실도 있었다. 물고기는 프토마인물질이 잘 만들어지고 더욱 심하게는 보툴리누스독소가 형성되어 종종 사람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독성 성분 때문에 말린 연어 고기와 다른 고기를 먹고 사망한 미국 원주민의 사례가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육식동물, 독수리 새, 늑대, 여우 그리고 코요테 같은 청소동물들이 해안가까지 떠내려 오거나 죽은 상한 고기를 먹은 채 죽어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먹으면서 처음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잡은 물고기와 그 물고기의 양이 매우 적었고, 그 맛이 얼마나 기막혔었는지를.

아직도 그때와 같은 심정이 들었다. 여전히 음식에 대해 경이감을 느끼면서 불을 피우기 위해 강둑 위에 있는 개활지를 찾았다.

근사한 만찬, 넉넉한 식사. 고맙습니다.

## 3장

달라졌다. 처음엔 자신이 또 변했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변해 가고, 예전보다 많이 알게 되면서, 브라이언은 자신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캠핑”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일레이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난 직후 처음 덤불 속에 있게 되었을 때만 해도 은신처와 머물 곳이 필요했었다. 혹은 필요했었다고 생각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비행기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싶었다. 지금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기를 만들고 이동하면서 사냥하고, 사냥여행을 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야영지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곧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금방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브라이언은 항로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다. 그때는 불을 피우는 게 쉽지가 않았다. 계속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매일 밤 손도끼와 돌맹이로 새로운 불씨를 피우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고기를 요리하려고 할 때마다, 불을 피우는 일은 매우 더디기만 했다.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달라졌다. 이제는 야영지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는다. 재빨리 개활지를 찾고, 카누를 호숫가에 대고, 밀랍을 입힌 성냥개비 한 개로 불을 피우고, 고기의 내장을 꺼내서 호수에 버린다. 호숫가에는 곧 작은 민물고기가 모여 들어 순식간에 먹어 치운다. 그리고 한 쪽에선 물고기의 몸통 한 면을 구울 수 있게 만든 평평한 나무판이 북쪽으로 마련된다.

잡은 고기를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물고기의 옆구리를 쪽 가르고,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취사도구세트에서 꺼낸 알루미늄 냄비에 넣는다. 처음 구운 물고기의 한 쪽 면을 뜯어 먹는 동안 물고기의 반대편을 굽기 위해서 뒤집는다. 소금 간을 하긴 했지만 점점 소금 간이 싫어졌다. 악명 높은 Y자형 가시 등을 조심스럽게 골라가면서 가시만 남을 때 까지 한 쪽 면의 물고기의 살을 손가락으로 발라 먹었다. 굽고 있는 물고기의 다른 편이 다 익을 때까지 먹는다. 익힌 물고기 면 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대가리를 열고 머

리와 눈알을 먹고 (이미 오래전에 까다롭게 굴거나 결벽증을 보이는 행동 따윈 벗어던졌다), 가시와 물고기찌꺼기는 민물고기들이 얻으려고 몰려드는 호수에 버리고 나서 기어를 살펴보기 시작한다.

카누의 조종 장치에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하루에 한 번 씩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애썼다. 카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카누는 케블러 (Kevlar) 제품으로 방탄성이었다. 다음으로 두 개의 합성 노가 있다. 그리고 무기들. 얇은 판으로 된 곧은 활이 있었는데, 45 파운드짜리를 26인치 끌어당길 만큼 긴 것이었다. 더 강한 활을 시도해 보고, 잠시 동안 시험 연습해 보고 나서 복합식 활을 보았다. 활에는 도르래, 케이블과 조율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이 덩불 속에서는 큰 소용이 없었다.

활과 활시위, 여분으로 갖고 있는 두 개의 시위와 각각의 화살을 점검하면서 자그마한 돌멩이로 짐승용 화살촉의 날이 서도록 손질을 했는데, 이런 모습의 브라이언은 마치 면도기 같았다. (그의 팔을 빌려 털을 깎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북부 삼림지역에서 사용했었던 화살을 제대로 말리고, 화살머리에 꽃은 깃털들을 뽀뽀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칼. 끝이 날렵한 사냥용 칼을 항상 벨트에 차고 다녔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병대가 쓰던 칼과 흡사했는데, 케이-바(K-Bars)라고 한때 유행했던 칼이다.—화살촉 손질하는데 썼던 같은 돌멩이로 칼날도 다듬었다.

다음으로는 나무를 베거나 카누에 붙은 지붕을 설치할 때 사용했던 다목적용 작은 양날 선박용 도끼가 있다. 그리고 옷가지들, 바늘땀을 확인하고 옷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 수선 도구세트들이 있다. 또한, 뒤축 없는 사슴 가죽 구두가 세 짝 있었는데, 그 중에는 추운 날씨에 대비해 에스키모 인이 신는 물개모피장화를 본떠 만들어 무릎까지 오는 것도 있었다.

연한색의 상의와 통기성 있는 방수성 소재로 무릎까지 오는 풀오버 아노락(두건 달린 방한용 자켓)과 파카 밑에 입을 수 있는 폴라 플리스 재질의 풀오버가 두 벌, 폴라 플리스 바지 두 벌,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직 장갑 네 짝이 있었다. 매서운 겨울을 참을 수 없었지만 추위가 덜한 금년은 견딜 만했다.—금년 겨울은 처음 이곳에서 보냈던 겨울보다는 나았다. 모든 기어장치를 확인하고 나서 호수에서 물을 떠다가 차를 끓였고 마셨던 찻잔이 식었을 즈음, 근처에 있

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불길을 바라보았다. 속은 든든했고, 밤이 오고 있었고, 나른한 기분이 들었다.

카누 안에 등산용 침낭이 있었는데, 무게가 5파운드 나가는 사람에게 알맞은 크기로 십도 이상 따뜻하게 해 주었고, 침낭용 매트리스는 밀폐기포 고무패드로 된 매트리스이다. 침낭을 꺼내고 나서 밤을 보낼 수 있는 전등을 설치할까 하다가 관뒀다.

등산용 침낭은 이렇게 포근한 날씨엔 지나치나 싶을 정도로 컸다. 만약 강한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카누 안에 있는 잠자리를 호숫가 밖으로 옮겼다. 끝이 무더져 둥글게 마모된 직경이 단 4 인치인 작은 걸쇠와 100 피트 길이의 가벼운 나일론 줄이 있었다. 걸쇠를 떨어뜨려 땅에 잡초와 진흙을 묻히고 혹을 아래에까지 당길 수 있도록 충분히 끈을 끌어당겨다 위치를 잡고서 카누 선수에 혹을 달아놓고 선수 바닥에는 짐 앞에 침낭 패드를 펼쳐서 짐과 함께 덮개 방수외투를 베개 삼아 그곳에서 잠을 자곤 했다.

북부 삼림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강은 수심이 얇고, 오래전 빙하작용으로 인해 파헤쳐져서 15인치 이상 혹은 20인치 깊이도 되지 않았다. 바람이라도 불지 않는 날은 마치 요람 안에서 자는 것 같았다. 호수 밖에 있는 모기는 골칫덩어리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늦은 여름으로 모기들이 가을이 되기 전 사냥하려는 충동에 휩싸여 피를 빨아 먹고 알을 낳기에 봄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첫 번째 부화시기인 여름에 브라이언은 모기떼들이 그의 콧구멍을 막는 것을 보고는 매우 좋지 않았다.—주여, 비행기가 호수로 불시착하고 나서 처음 해변까지 기어갔을 때 모기떼가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를 괴롭혔다.

어둠이 드리워지고 모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카누의 기어변속기를 뒤로 고정한 채 물가에서 100 야드 떨어진 곳까지 노 저어 갔다. 여기에서 카누를 멈추고 날씨를 확인하면서 몇 분 동안 그냥 떠가고 있다. 해질녘은 너무나 잔잔하고, 평화로웠고 바람 한 점 없었다. 혹이 카누 바닥을 쳐서 뒤로 노를 저을 때까지 꾸벅꾸벅 졸다가 옆으로 혹을 살며시 놓았다. 혹이 걸릴 때까지 걸쇠를 보라 인(돛을 뱃머리 쪽에 매는 밧줄)에 묶어 두고서 침낭 위에 자기 위해서 잠자리를 정리했다. 대기는 그윽했고 여전히 따사로웠다. 거울처럼 비춰 지는 물가 사이로 서로를 부르고 있는 아비 새의 저녁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쉬기 위해 드러누웠다.

깊은 잠에 들기 전 수많은 좋은 날 중에서 더없이 좋은 날 마지막으로 한 생각  
은 그의 인생 중에 바로 적당한 장소에 때 맞춰 있다는 것이었다.  
최고야.

## 4장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다.

카이-가-다우쉬와 미인 점에 대해 꿈을 꾸면서 깊이 자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낯선 것들에 반응하게끔 적응되었다. 가 본 적이 없는 사냥 길, 그곳에서는 들리지 않을 소리, 낯선 빛깔이나 냄새. 브라이언이 가장 최근 문명사회 되돌아갔을 때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이렌소리, 담배의 악취, 쿵쿵, 덜컹덜컹, 소음—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둔감하게 만들더니 아무것도 듣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여기, 지금, 낯선 소리나 빛깔 혹은 행선지나 냄새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언젠가 사냥하고 있는 늑대를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잔걸음으로 가거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매 수 피트마다 멈춰 서서, 보고 냄새 맡고 귀를 기울이며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한다. *모조리*. 풀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부드러운 소리의 속삭임, 어떤 냄새까지도.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잠에서 깬 채 누워, 낯선 소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만 알 뿐 어떤 소리였는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귀를 맑게 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숨 죽여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렸다.

밤에는 너무나 고요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따뜻하게 하려고 지퍼를 채우지 않은 침낭을 머리 너머까지 끌어 올렸고, 심지어 극성인 모기들마저 잠잠해지게 할 만큼 서늘하고 조용해서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다른 소리는 없었다.

달은 반쯤 차고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듯 호숫가의 주변을 밝게 비추 주었다. 카누는 매끄러운 수면위로 부드럽게 나아가고, 조그마한 닻은 여전히 단단하게 지지해 주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약간 자세를 바로 해서 앉았다. 해안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족히 100야드나 되는 거리로 멀기도 했다.—밝은 달이 비추고 있어도 작은 것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소리, 벌레며, 아비 새까지도.

하지만 이미 깨어 있다. 왜일까? 덤불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크든 작든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를 깨운 것은 꾸고 있던 꿈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깥에서 그를 깨우게 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것을 들을 수도 없었고 혹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기다려. 저기야.’

‘소리야. 뭐지? 너무 부드러운 소리여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부드러운, 훌쩍거리는 소리. . . .’

‘흐느낌. 개가 낼만한 부드러운 구슬픈 소리가 마치 애원을 하거나 어디 다친 것만 같았다.’

‘개?’

이제는 앉아서 호수 기슭을 살살이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코요테, 아마도 브러쉬 늑대(미네소타 코요테라고도 함)가 불러내어 북쪽으로 가거나 혹은 팀버 울프 (동부 울프라고도 함),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상대방에게 애걸복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짐 속에 자그마한 단안식 망원경 한 대가 있었다. 쌍망원경은 너무 무거웠지만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멀리서 보고 싶을 때가 있다.—특히 여러 호숫가에 있는 독수리 둥지에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어린 독수리 새끼들을 보고 싶었지만 너무 가깝게 접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망원경을 꺼내 호숫가를 유심히 보았다. 그것은 고작 8배율로 달빛을 끌어 모아 해안선을 부분으로 쪼개어 늑대나 코요테를 보려고 했다. 여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고말고?’

처음으로 주변을 쓱 둘러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달을 보며 지금쯤 새벽 두시나 세시는 되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한밤중 소리의 주인공이 코요테이든 늑대이든 아니면 작은 곰이든 간에 소리를 다시 들으면 잠을 좀 더 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소리가 아까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더욱 지속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더 길게 소리가 났다.

또 다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고 중간쯤까지 왔을까, 해안선을 유심히 살피면서, 모닥불을 지펴 북 방산 강꼬치 고기를 요리해 먹은 지점을 보고 있었다. 그 때 그것을 보았다.

식사를 끝내고 등을 기대었던 통나무 옆에 형체가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 있거나 혹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이, 코요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늑대만 하지도 않았다.

짙은 형체로 봐선 작은 곰일지도 모른다.—숲 속에는 검은 색 곰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계피색갈의 검은 곰도 있었으며, 관심 받을 만했다. 수차례 곰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곰을 향해 거의 총을 쏠 뻔했고, 또 한 번은 겨울 동안 머무는 은신처에 들어오려는 곰을 스킵크로 물리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동물은 곰과는 꽤 달랐다.

그 동물은 움직이더니, 천천히 일어났고, 그제서야 그것이 네 다리가 달렸고, 코요테보다 약간 큰 몸집에, 어깨에는 반들반들한 반점이 있는, 제정신만 아니라면 틀림없는 개였다.

‘씩 꺼져!’

개는 수면 사이로 브라이언을 바라보더니 킁킁 흐느껴 울었다.

‘이런. 하필이면 이때. 좋아.’

‘개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이제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 자세를 고치고 앉아, 노 줄에서 닳줄을 가져다가 작은 네발 닳에 걸고 연안을 향해서 노 저었다.

호수 기슭에서 40피트, 개와는 60피트 거리에 왔을 쯤 멈춰서 다시 한 번 개를 찬찬히 보았다. 광견병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광견병에 걸린 개가 멀리 사라지거나 해를 끼치기 전에 병에 감염되면 동물들은 대개 죽게 되는데 혹시 이 개가 광견병에 걸렸을 경우, 자신이 개를 갈기갈기 찢거나 죽이고 싶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망원경을 다시 사용했다. 망원경으로 많은 빛을 모아 개를 살펴보았다. 개를 만나기 위해 노를 저어 호수 기슭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보니, 개는 거동이 불편해 보였고 몸은 오른쪽으로 기운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알아보려고 망원경을 집어 들었다.

틀림없는 개였다.—어두워도 개가 암컷임을 알 수 있었다.—크리족이 보통 숙소에서 겨울이면 썰매를 끌게 하거나 여름에는 짐을 나르게 하는 별 특징 없는 검은 털이 난 알래스카 말라뮤트 잡종 개였다. 이런 개들은 썰매용이기보다는 숙소를 지키는 개이자 벗으로 필요할 때만 썰매를 끌었다. 그리고 개가 그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개의 어깨에는 반들반들한 부위가 있었는데 그 부위만 없었다면 짙은 갈색을 띠는 털이었다.

바로 그때 개가 몸을 돌리자 브라이언은 반짝이는 부위가 더욱 잘 보였고 그제 서야 개가 어떤 식이로든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싸우다가 다쳤는지, 베인 상처가 오른쪽 어깨 끝에서부터 시작해 내려 와서 뒤 엉덩이 끝에 까지 비스듬히 피가 번지고 있었다. 양 옆으로 피를 뚝뚝 흘리고, 흘린 피 중 대부분이 엉겨버렸지만, 브라이언은 달빛을 받은 신선한 혈액의 윤기를 볼 수 있었다.

“맙소사,” 브라이언은 크게 말하고선, 큰 소리로 말한 자신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거의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개는 말소리에 수줍어하는 개가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다시금 그를 향해 훌쩍였다. 나지막하게 부탁하는 소리, 영혼의 소리였는데 브라이언은 도와주기 위해 노를 저어 육지를 향해 다가갔다.

## 5장

개가 호수 기슭을 향해서 움직이는 카누를 보자, 처음에는 반기려고 움직이더니,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브라이언은 호수 기슭에 카누의 앞부분이 부딪히기 전에 다시 한 번 망설였다.

개가 나타난 일이 매우 낯설었고, 덩불 안에서 벌어지는 낯선 일들은 대개 연구해 볼 만한 것이었다.

‘개가 여기에 있었고, 친구로서 브라이언에게 인사하는데, 왜지? 왜 개야? 왜 여기에 있지? 여기에 더 많은 것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테지만 강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잠시 기다렸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개를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앉고, 고통으로 흐느껴 울다가, 상처를 위로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마냥 브라이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해서 브라이언은 강둑 위로 뛰어 올라 카누에서 내렸다. 개에게로 가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전히 캄캄했지만 보름달이 떠 있어서 상처가 난 부위의 대부분을 볼 수 있었다. 한 발 반 길이 정도 찢어진 상처로, 그다지 깊지는 않았지만, 피부가 찢어지고 표피가 흘랑 벗겨져서, 피가 많이 엉켜있었다. 여기저기에서 피가 흘러 나왔지만 살펴보았을 땐,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래도 개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했고 돌봐주기 위해서는 빛, 불빛이 필요했다.

“여기에 있어,” 개에게 말했다.

“난 나무를 구해서 불을 지펴야 해.”

말뜻을 이해해서인지 아니면 아파서 그랬는지, 브라이언이 달빛 속에서 움직이며 땀감과 마른 풀을 찾아서 근처에 작은 불꽃을 살리는 내내 개는 카누 앞머리 옆에 있었다.

불에 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 와서 상처를 더욱 잘 보려고 가까이 댔는데 이런 행동이 개를 놀라게 했다.

“자아, 진정해, 내가 상처를 봐야 하니까. . . .”

손을 개의 머리에 얹으니 자신을 달래 주는 그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곧 안정

을 되찾았다. 브라이언은 불꽃을 다시금 높이 들고서 비교적 밝은 상태에서 찢어진 상처를 보았다. 손바닥 반만 하게 어깨 피부의 거죽이 흘러넘 벗겨져 있었다.

드러난 살과 근육을 볼 수 있었다. 살이 너무 다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고정시켜서 덮어 주어야만 했다.

“아니면 꿰매거나,” 크게 말했다.

“나에겐 낚시줄과 바늘이 있어. 네가 내가 꿰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카누로 가서 바느질 수선 도구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실이 있긴 했지만 치료용으로는 너무 얇아서 옆으로 빠져 나올 것이다. 큰 바늘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만 빼면 낚시줄이 훨씬 나올 것이다.

개에게 되돌아가며 생각해 보니, 어찌 보면, 실로 꿰매는 것이 개에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개는 그다지 큰 체구가 아니었다.—한 40파운드쯤 될까—하지만 이빨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도시에서 개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늑대들이 사슴을 죽이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서 이런 동물들의 이빨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읽었는데 평범한 개의 어금니로 제품 인치 당 2600 파운드 나가는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팔의 단면적이 약 제품인치이다. 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상처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내가 널 아프게 할지도 몰라,”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개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상처를 꿰매어야 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 줄게 만약 이것을 꿰매지 않고 싸지 않으면 파리들이 그 안에서 새끼를 칠 걸. . . .”

말하는 내내 개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모닥불 밑에서 바늘구멍 사이로 낚시줄을 꿰면서 준비해 나갔다.—이 자체만으로도 하찮은 재주는 아니었지만—말을 듣고 개가 위로 받길 바랐다.

“내가 물로 상처를 씻어 줄게” 라고 말하며 호수에서 가져 온 물을 살짝 적셨다. 위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온통 먼지와 풀로 범벅된 상처보다는 호수물이 깨끗했다. 호수에서 떠온 물을 끓여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면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개가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오래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약하게 물을 튀겨 가면서 물이 피나 먼지를 없앨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로 상처를 씻어 내고서 피부의 거죽을 벗겨진 상처 위로 다시 덮었는데 다친 부위를 덮기에는 피부 표피가 적은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주변에 4분의 1인치가 부족했는데, 그새 줄어든 것 같았다. 꿰매는 동안 표피를 끌어 당겨 펴야 했다.

처음에는 피부 조직을 쪽 펴서 낚시줄을 쥔 큰 바늘로 한 땀 따고 또 따면 어떤 기분이 들지 혼자서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고 놀랐다. 상처 부위를 씻기고 거죽을 제 자리에 붙이는 동안 개는 잠자코 있었는데—브라이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욱 얄전하게 있었다.—하지만 개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면 조용히 누워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큰 문제인데,” 브라이언은 말했다.

“조금 더 아플 지도 몰라 . . .” 나중에, 훨씬 나중에, 개에게 말을 걸었던 첫 만남의 밤을 기억할 때면 개를 마치 사람인 냥 대했고, 그런 모습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브라이언은 모든 동물들, 사슴, 새, 늑대, 가끔은 물고기에게도 말을 걸었다. 그래도 이 개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말뜻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자, 시작해 볼까,’ 마음먹고서 거죽을 당겨서 원래 위치까지 세계 잡아당기고 바늘로 처음 한 땀을 두고서, 피부를 통해 바늘을 쥔 때 아주 세계 밀어야 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다. 마치 보관해 두었던 가죽 같아서 첫 번째 가장자리에 한 땀을 들 때 개가 참아야 하는 것보다 그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힘을 들여야만 했다. 피부 거죽을 당겨서 제 위치에 놓고서 반대편 끝까지 실을 쥔 바늘을 당겨서 다른 끝의 피부 조직에 바늘을 관통해서 나오게 하는데, 이때 피부 안을 통해 뽀족한 바늘이 나와야 해서 세계 밀어야 했다. 다음엔 연결된 실로 두 양끝을 당겨서 고정되도록 처음 매듭을 단단히 하고, 대략 4분의 1인치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었다. . . .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그리고 개에게 말하는 내내, 개가 자신을 한 대 때리기를 바라는 심정이 되었다.

“너는 매우 강한 개구나. 나는 이런 아픔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알아. 너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쿡 찌르고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강인한 아버지와 강인한 어머니로부터 우월한 강인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에 틀림없어. . .” 개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려다 보니, 그의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워 졌다.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브라이언이 상처 난 부위의 양끝을 동시에 당기려고 실을 잡아 당겼던 처음에만 고개를 돌리고, 가슴속에서 나오는 낮고, 깊은 공공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신음소리였다. 이후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이빨도 드러내지 않았다. 개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 불빛 속에서 브라이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충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정을 짓고선, 고개를 떨어뜨리고, 더 이상 공공거리는 소리도, 울부짖는 소리도, 신음소리도, 흘깃 보는 시선도 보내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누워, 브라이언이 모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겨우 안심되었다.

서른 두개의 바늘땀을 꿰매었고, 제자리에 각각 꿰맸다. 머리 너머에는 스물땀을, 몸 앞판 밑으로는 열 두 개의 땀을 두었고, 각각 사분의 일 인치 간격으로, 피부 거죽은 함께 끌어 당겨 모두 촘촘하게 꿰맸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자그마한 비상 응급 도구세트가 카누 안에 있어서 소독약을 꺼내 왔다. 상처부위를 전부 소독하는데 충분하진 않았지만 꿰맨 가장자리 매듭을 따라 소독약을 똑똑 뿌렸는데 개가 눈을 뜨지도 않고 숨소리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공공 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약병에 적혀 있던 대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 끝났다.

브라이언은 바늘을 씻고 응급도구세트를 카누 안에 놓고, 호숫가에서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서, 땀감을 더 구해 오고 불을 지폈다.

개는 모닥불에서 4 혹은 5인치 떨어진 지점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곧 브라이언은 불이 탁탁거리는 소리 너머로 개의 코 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브라이언은 불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마음이 자유롭게 가는 대로 놔두었다. 이개가 매우 다정해서 좋았고, 개한테 물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브라이언은 동쪽을 바라보고서 으스스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몇 시간 지나면 햇빛이 비추고 다음엔 . . . 뭐지?’

알아내자고 마음먹었다. 분명한 건 개가 야생 개가 아니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꽤나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카누 바깥에서 자고 있는 브라이언의 존재를 온 감각을 총동원하여 감지하는데, 마침 킁킁 소리는 내어 그를 깨웠다.

도움을 원하는 게 분명했다.

‘도대체 개는 어디에서 온 걸까?’

브라이언은 냉큼 확인해 보았는데 개목걸이도 없었다. 브라이언은 개가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라는 것과 멧대로 돌아다니는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개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근처 뒷 사냥꾼 쪽에서 온 것임에 틀림없어, 가까운, 멀리 떨어져 있는 크리족 캠프에서 온 것일지도 몰라. 주인이 있는 개가 맞을 거야.’

하지만 브라이언이 있는 반경 수마일 이내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만약 주변에 캠프나 사람이 있었다면, 알아챘을 것이다. 덤불 속에 사는 동물들은 인간들에게 반응하고, 누군가가 근처에 있으면, 다르게 “느꼈지만”, 브라이언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짐승이나 사람의 자국도, 풀잎에 있는 얼룩도 보지 못했고, 연기 냄새도 맡지 못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개가 딱 하니 나타난 것이다.

‘분명 주인이 있는 개인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혼자 제대로 사냥도 할 수 없는 개였다. 개는 말라 있었고, 사람 곁에 있고 싶었지만 무슨 연유로 사람에게서 떠나게 된 걸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다.

모닥불에 땀감을 넣으면서 더 잘 보이는 불빛 속에서 개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다친 부위가 숨결에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고, 약하게 코를 골아 가면서 개는 곤히 자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개의 숨 쉬는 소리를 좋아 했지만 개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여태껏 해 보지 않았다. 부모님이 브라이언한테 개를 못 키우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개들은 너무 더럽고 털갈이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 브라이언도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아 줄 만큼 책임감이 없었다. 주여,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님.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한심스럽기만 그런 때가 있었던가?’

개의 숨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상처를 지켜보았다. 사람이나 동물과 싸워 생긴 것이었다. 떨어지거나 방망이로 맞아서 생긴 상처는 아니고, 베인 상처였다.

‘어떻게 이런 상처가 생겼을까?’

‘다른 개와 싸운 걸까?’

개를 치료하는 동안 다른 개와 싸웠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다른 개와 큰 싸움을 벌이고서 추방당했다.—하지만 그런 일이 잭 런던의 소설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잭 런던이 다루었던 숲 속에서의 생활의 많은 요소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그는 강인한 사람이고, 훌륭한 작가일수는 있어도, 고주망태 술에 취해 숲에 대해 쓴 내용은 엉뚱한 구석이 많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서 싸움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심하게 부상당한 개는 한동안 쓸모가 없어져서 사냥개들은 일하고, 흠을 다 지고, 터보건을 끈다. 이 개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개가 싸워서 도망쳐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외에 다른 경우.’

‘그밖에 어떤 경우도 말이 안됐다. 추방당하지 않았거나 상처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개는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 . .’

‘늑대?’

브라이언의 생각은 거침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이 개는 사냥이나 다른 것을 하다가 캠프가 있는 곳에서 너무 먼 곳까지 가게 되었고, 한 무리의 늑대와 마주 쳤을 지도 몰라. 말하자면, 늑대가 이 개를 덮치고 상처 입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녀의 원래 숙소로 돌아가지 못한 거야.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멀리 도망친 끝에 카누 속에서 자고 있던 브라이언을 발견해서 호숫가까지 이르게 된 것이야. . . .’

‘아니야.’

‘만약 늑대들이 그녀를 공격했다면—데이비드 스몰혼(David Smallhorn)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이런 늑대들이 가끔 작은 개들을 죽이고 잡아먹는다고도 했다. 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늑대들에게 잡혀 먹었을 것이다. 어떤 개도 늑대

때보다 빨리 달리거나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친 상처로 봐선 사람이 저지른 것 같진 않았지만 가능한 일이었고 타당한 일이기도 했다. 만약 이 정도로 심하게 개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잔인한 사람이라면, 개는 달아나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쁜 족속들에 대해 읽고, 뉴스에서 들어 본 적이 있어서 브라이언도 알고 있었다.

‘야수들. 바로 야수인간들이다.’

하지만 상처는 베인 것도, 무기로 인해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았고 이빨이나 발톱으로 뜯긴 상처였다.

몸집이 큰 고양이들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몇 번 스라소니를 본 적이 있었는데 40 파운드 나가는 스라소니들은 확실히 이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하지만 개가 스라소니를 따라갈 만큼 우둔했다면, 스라소니야 말로 쉽게 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숲속에서는 북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팬더스 (panthers) 혹은 페인터 (painters) 라고 하는 흔하진 않지만 산 사자가 있었다. 산 사자들이 야말로 개를 이런 식으로 쉽게 상처내고 죽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다. 산 사자들은 개와 싸우기 보다는 몸집이 작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먹었다. 브라이언은 여러 번 로스엔젤레스 주변에서 푸들견과 다른 강아지들을 흠치는 산 사자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산 사자는 실제로 L. A. 근교에서 조깅하고 있던 한 여자를 덮쳐 죽이고 사체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어 치웠다.

하지만 개의 경우는 달랐고, 다른 동물의 예로는 근거지 캠프를 떠난 개의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사슴, 무스들은 그들의 발굽이나 사슴뿔로 이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는데, 일단 개가 공격당하면, 다치는 쪽은 대개 사슴이라고 해도 개들은 사슴에게 반격하려는 동안,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매년 많은 사슴들은 애완견으로부터 거칠게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독일산 셰퍼드가 서너 마리 개와 함께 있거나 사슴에게 달려들 경우 얼마나 사악해 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양일수도. 혹은, 가끔, 아이일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이유로 개가 달아났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개가 사슴을 공격하려고 애썼고 사슴이 개를 심하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개는 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다. 도망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남은 동물이 뭐있지?

북쪽 숲속에서 이 같은 소행을 저지를 동물은 이제 딱 하나.

‘곰.’

발톱을 지켜 세우고 한 방 날리면 이런 식으로 개를 손쉽게 찢어 놓을 수 있었다. 곰들이 이런 짓을 할 위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브라이언은 한 마리의 곰이 굴뚝이를 찾아다니면서 공중을 향해 2.5톤 정도 되는 통나무를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이견 말이 안 된다. 개가 곰한테서 상처 입은 것이라면, 달아나지 말고 집으로 도망쳐야 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차를 끓여 마시기 위해서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오늘은 바쁜 날이 될 거야. 종든 싫든, 개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젠 그에게도 보살펴 주어야 할 가족이 한 명 생겼다.

개에게는 양식과 보살핌이 필요했고 이것은 그가 사냥을 해야 한다는 곧,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필요하기만 하면, 개를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물고기, 심지어 튀김용 민물고기까지 가져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늑대에게 고기가 필요한 것처럼, 결국에는 개도 영양가 풍부한, 붉은빛 고기가 필요할 것이다.

무스 고기는 지나치게 양이 많았지만 작은 사슴 한 마리 정도는 그와 개가 먹고도 음식물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적당했다.

개가 어디에서 왔는지, 최소한 방향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신호를 포착하고, 동시에 사슴을 잡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우선은 덮은 놓았다.

그날 밤 개가 자신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이제 다른 일이 있었다.

## 6장

새벽녘 어스름한 빛 속에서 브라이언이 활과 화살통을 집어 들었을 때, 개는 따라나서려 했다.

“안 돼,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해,” 브라이언은 말을 하려고 애썼다. 손을 뻗어 더욱 단호하게 말했는데, “거기 서!” 하지만 개는 일어서더니, 여전히 다친 쪽을 보호하면서, 캠프를 빠져 나가는 브라이언을 따라 나서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은 닻줄을 가져 와서 손수 미끄러지지 않는 개목걸이와 줄을 만들어 개를 카누 전면에 묶어 두었다.

개는 줄을 자근자근 씹어 어떻게든 쉽게 따라 올 수도 있었지만 결국엔 묶인 줄을 보고서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다. 처음에는 앞서서 브라이언이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내 자리에 누웠다. 브라이언이 줄을 느슨하게 해 놓아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브라이언이 뒤돌아 힐끔 한번 바라보았다. 개의 시야에서 브라이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쯤, 개는 일어나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눕더니 잠이 든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주의 깊게, 천천히, 동물이 지나간 흔적을 찾는 데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베일에 휩싸인 수수께끼 같은 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작은 원, 혹은 반원에서부터 시작했다. 왜냐하면 원이 호수 기슭에서부터 나서, 300야드 밖까지 나 있었고 호수 기슭 주변과 뒤쪽으로도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난 둥근 모양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개활지의 부드러운 흙위에 난 개의 발자국을 보았다.

이 방향으로 발자국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다가, 작은 원호를 그렸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첫 번째 자국에서 북쪽으로 약 100야드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다른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부드러운 진흙위에 난 개 발자국과 나뭇잎에 묻은 혈흔이었다.

‘다 끝났어’

가을이었으면 수월했을 텐데, 물론 눈 쌓인, 겨울이면 더욱 쉬웠을 것이다. 가

을이면 앞은 지고 풀은 색이 바래서 사물을 분별하기 더욱 쉬어진다. 지금은 짙은 단풍잎으로 인해서, 보기 위해 길 위에 서서 확인해야 했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알아 낼 수 없었다.

아마도, 어쩌면, 개는 북쪽에서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전부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얼마나 먼 곳인지, 혹은 북쪽이 맞는 방향인지도 알 수 없었다. 개는 동쪽지방에서 와서 브라이언의 인기척을 듣고 사람 냄새를 맡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서쪽에서 왔을 수도 있다.

사슴도 없었다.

오, 흔적을 보았다. 만져 보니 여전히 미지근한 동물의 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덤불이 너무 우거져서 활을 발사하려고 가까이 가는 것은 힘들었고 한 마리 사슴도 볼 수 없었다.

우연히 눈신토끼 (북미산 멧토끼의 일종으로 발이 크고, 겨울털은 희고 여름털은 암갈색)를 발견한 그는 이 산토끼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숲이나 필드에서 쓰는 화살로 바꾸고는 수렵용 화살촉을 활에 끼운 채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가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다가 잔가지에 맞고서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토끼의 배 밑에 맞아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전에 비명을 지를 만한 시간을 벌여 주었고 나중에 죽었다. 토끼가 죽을 때는 가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포식동물이 그들 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브라이언은 이런 소리를 밤중에 여러 번 들었다.—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이 소리가 싫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비명소리야말로 4분의 1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뒤바꾸어 놓았고 또한 두 가지 이유에서, 포식동물이 사냥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냥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는, 모든 작은 동물들은 숨어버리고 사슴은 이 지역을 떠난다. 둘은, 비명소리 때문에 다른 포식자들은 동물이 죽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늑대, 코요테, 매, 고양이, 족제비, 여우, 부엉이, 독수리, 담비, 낚시꾼—중간 지역에 있는 육식자들은 누구든지 비명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가고 나머지 다른 작은 동물들은 은신처에만 머물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규칙의 예외라면 목도리뇌조 (북아메리카산 조류)인데, 너무 우둔한 나머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울창한 나뭇잎 속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뛰어난 위장술이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탐나는 먹이 감이고 요리하면 맛이 좋은 육 고기라 할지라도 숲속에서 그들을 알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브라이언이 날린 화살이 잔가지를 맞혔을 때 자신을 잠시 책망하는 것 빼고는 토끼나 물고기야 말로 좋은 식사거리였다. 브라이언은 토끼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야영지로 돌아 와서 목도리뇌조가 주변에 있는지 눈을 크게 뜬 채 주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묶인 채 카누가 옆에 앉아 있는 개가 보였다. 개도 토끼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브라이언이 다가오자 맞이하려고 일어섰다.

“안녕,” 브라이언이 말했다.

“먹이를 가져왔어. 고기를 넣어서 국을 만들 거야. . . .”

개는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고 자신의 몸에 감긴 로프를 밀어 내려 하자 브라이언은 줄을 풀어 주었다. 풀어 주자마자 토끼를 들며 올려 개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생고기는 안 돼,” 그가 말했다.

“날 것은 안 된다니깐. 잠시 있으면 내장을 꺼내 줄께. . . .”

노를 한쪽으로 치우고, 칼을 꺼내 죽은 동물의 몸통 중앙 위에서부터 잘라 내장, 심장, 간, 폐를 꺼내 그것들을 개에게 주었다. 그러자 개는 모든 것을 홀랑 통째로 삼키고선 머리를 쫓긋 들고 강아지가 애걸하는 태도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더 달라고 애원했다.

“매너는 어디에 두고 다니니. . .”

브라이언은 미소 지으며 처음 이 곳 숲에 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익히지 않은 내장을 날로 먹고 있는 개를 보자니 토할 것 같았다.

이젠 그도 늑대와 코요테가 죽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사체의 내장은 그런 짐승들이 매우 좋아하는 부위였다. 그리고 보면 개는 순전히 흔한 육식동물인 늑대에 가까웠다.

토끼의 거죽을 벗기고 말리기 위해 나무 위에 높이 퍼서 널었다. 짐승의 가죽은 얇고 허술해서 제철인 한 겨울 시기에 제작한 고급 모피의 질에 비해 질이 너무 떨어졌고 잘 입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털로 미끼와 자그마한 낚시 바늘을

만들어 보고 송어를 낚는데 호수가 사이에 난 개울가에서 버드나무를 낚싯대와 제물낚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카누 밑으로 송어 떼를 자주 보았는데 그것들 중에는 꽤 큰 것도 있었다. 그런데 송어가 해괴하게도 미끼로 벌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화살로 활을 쏘아 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불을 피우고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알루미늄 주전자에 물을 담고, 토끼의 사체는 통째로 내다 버린 후, 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전자 뚜껑을 약간 비스듬히 세워 덮었다.

그리고 활도 없이 물고기용 화살중 하나를 꺼내, 호수 기슭에 개를 남겨 둔 채, 수련 잎이 피어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카누가 떠내려가게 하고선 옆으로 삼중 미늘이 있는 화살촉을 물 속 한 피트 아래 담그고 붙잡았다. 잠시 후 촉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가만히 붙잡고 있으니 다시 입질이 왔다.

‘그들이 왔군.’

사인치나 오인치 쯤 되는 호기심에 가득 찬 작은 블루우 길(송어의 일종)과 개복치(납작한 민물고기)가 가까이 올 때까지 참지 못해서 날렵하게 뾰족한 촉을 수중 아래로 쿡 찌르고서 한 머리 잡아 보트 안으로 핵 던져 넣고, 촉을 밖으로 빼서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

20분이 지나자 잡은 물고기는 열 마리가 되었고 그것들을 강가로 가지고 가서, 칼날로 비늘을 벗기고 가지런히 잘라 국에 넣기 전에 개에게 내장을 먹였다. 그 밖에 물고기 몸통, 대가리며 지느러미를 국에 넣었는데, 펄펄 끓고 있었다.

배낭에서 한 줌 되는 쌀을 덩으로 놓더니, “먹고 살찌우라고,” 웃으며 개에게 말하고서, “여기로 오렴. 어서”

그러자 개는 그에게로 와서는 다치지 않은 몸을 그의 다리에 기대고선 쓰다듬어 달라며 머리를 들었다.

“너는 다정한 숙녀이지, 그렇지?”

브라이언은 개의 귀를 비비면서 밝은 빛 아래에서 상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꺾맨 것이 반쯤은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지금에야 보니 다른 굵힌 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개의 옆구리가 작고 치명적인 갈퀴로 굵힌 것 같았다.

“발톱이 달린 어떤 것,” 브라이언이 말했다.

“개는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이빨도 아니야. 고양이, 큰 고양이, 팬더, 혹은 곰.”

‘또 있네. 곰. 곰이 있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집을 떠나 도망쳐서 곰을 맞닥뜨리게 되었거나. . . 뭐지? 습격당하고 나서 도망친 걸까?’

“아니야.”

멍하니 개를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네가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턱도 없는 소리지.”

불 위의 냄비는 팔팔 끓어 철제 손잡이 밑에 있는 젓가락으로 뚜껑을 열고 냄비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다.

토끼고기에서 뼈를 발라내기 시작했고 물고기는 거의 살집이 바로 문드러지기 직전이었다. 음식을 식히기 위해 냄비를 한 쪽으로 치우고 뜨거운 석탄에 초록나뭇잎을 던졌다. 날은 더워지고 있었고 검은 말파리와 사슴파리들이 극성이었다. 국을 식히면서 그와 개가 먹는 고기를 먹는 동안에는 연기 때문에 파리 떼들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지?’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엄밀히 말해서, 애완견은 아니었고, 개가 브라이언의 것이기 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게 맞았지만, 어쨌건 간에, 최초의 개, 그가 얻은 최초의 개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에도 개는 친구였고, 도움이 절실한 친구로, 상투 문구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였다. 브라이언은 파리 걱정을 하며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서 진흙을 끓여 파리가 오지 못하도록 상처 위에 바를까하고 생각도 해 보긴 했는데 상처가 점차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한 주 정도 지나면 실을 뺄 것이다.

한편으로 그저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지금으로선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시급함이 앞섰다.

‘가야 해. 이동해야 해.’

하지만 딱히 가야 할 이유도 없었다.

거기에 있어도 이상한 기분이 들고 마음속에선 가끔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계획도 정처도 없이 어딘가에 그가 보고, 행하고, 듣고, 느껴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일었다.

‘좋아.’

브라이언이 발견했던 드문드문 난 흔적으로 보아, 개는 북쪽에서 온 것 같았다.

그—아니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들은—그들은 북쪽으로 갈 것이다. 크리족의 야영지는 섬에 있는 애로우호 상류에 있었고 여기에서 20, 30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친구들을 보러 가면 친구들은 개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알겠지. 설사 그들이 모른다고 해도 수잔, 카이-가-다우쉬를 만날 것이고 그녀에게 미인 점에 대해 말하리라.

이제 둘 다 스투를 먹고, 다친 부위에 바를 소독용 진흙 팩을 만들고 나서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서두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 7장

브라이언은 호수에 있는 진흙을 끓인 다음 챙겼다.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상처에 바르기에 뜨겁지는 않았다. 진흙 팩 대부분이 떨어졌지만 일부는 붙어 있어서 상처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았고 바르는 동안 나은 방법을 생각했다. 나무 몸통에 있는 수액에서 송진과 전나무를 구해 와서 녹인 후 상처 위에 발랐다. 이것은 어떤 물건에도 잘 붙었다. 오늘 저녁 일을 끝내 고서 발라 주어야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브라이언은 벌써 *우리*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라고 말하고 있었다. 개가 예전부터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다.

약간의 토끼 고기와 두 마리 물고기를 먹고서 냄비에 있는 나머지를 개에게 주었다. 그러면 개는 물고기 대가리, 가시, 토끼 뼈, 고기 살점 등 무엇이든 먹어 치우고서 수프마저 모조리 마시고 난 다음 브라이언을 바라보면서 꼬리를 흔들고 순종한다는 표시로 귀를 접으면서 노골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다.

“배가 고팠구나, 그렇지?”

브라이언은 냄비를 씻고 카누에 실으면서 모든 게 잘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카누를 잘 다루고, 어쩌면 전문가 실력일지도 모르지만, 이제껏 커다란 개와 함께 가 본 적이 없었다. 카누는 가장 안정적인 도구는 아니었고 미친 개는 이 손수레를 뒤엎어 버릴 것이다. 카누를 단단히 아래에 고정시키고 끈으로 활과 화살 통을 묶어 기어를 변속하더라도 카누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카누를 육지까지 밀고 와서 강둑이 보일 때까지 옆으로 돌리고 나서 개를 볼 수 있도록 카누를 돌리자 개는 카누 앞으로 댕컴 뛰어 올라 자리 잡고선 브라이언이 타기를 기다렸다.

‘개는 이전에도 카누를 타 본 적이 있는 게 분명해.’

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크리족 캠프에 상주하던 개였던 것 같았다.

카누로 저어 나갔지만 채 20야드 가지 못했다. 이쯤해서 개의 든든해진 속, 따뜻한 햇살과 보트의 흔들리는 움직임에 따라 개는 카누 바닥에 드러누워 잠들어 버렸다.

브라이언은 팔을 길게 뻗쳐 일직선으로 제 위치에 끌어당기며 일정한 물의 흐름을 타고 앞으로 규칙적으로 노 저었다. 북쪽 지방에는 수천 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개울이나 작은 강과 맞닿아 있었다. 물이 타는 방향은 북쪽 아니면 서북쪽으로 낮은 언덕 너머 굽이치는 강이 많았다. 브라이언은 호수의 유출구를 찾기 위해서 북쪽 끝으로 이동하다 유출구로 흘러가는 개울 너머 비버 댐(beaver dam)을 보았다.

댐 상부에서 카누에 있던 짐을 손으로 내리고 아래 개울에서 그것들을 다시 챙겼다. 이점이 그가 케블러 카누 (Kevlar canoe) 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가볍고 놀라울 정도로 견고했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제멋대로 움직였다. 크리족은 오래된 두꺼운 유리섬유로 된 카누로 이와 같은 비버 댐에 닿 때면 증기마력이 나와 댐 위를 지나 미끄러져 쪽 아래로 내려와 개울가에 이른다.

한편 개는 힘없이 카누에서 내리고선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다른 호수에 다다르기까지 사, 오 마일 되는 개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몇몇의 연못들과 다섯 개가 넘는 비버 댐을 통과하기도 했다.

댐을 통과하는데 걸렸던 시간 때문에 때는 저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발걸음을 멈추고 쉴 만한 곳을 찾아 물고기를 잡던가 작은 사슴을 찾아 야간사냥이라도 해야 했다.

그들은 대낮에 연못가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네 마리의 무스를 보았는데, 그들 중 두 놈을 해치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만큼이나 간단했다. 브라이언은 둘 중 한 놈을 골라 접근했는데 작은 수놈 이었다. 작다고는 하나 600 파운드는 족히 되고도 남을 만큼 무게가 나가서 잡는다고 해도 고기양이 너무 많아 개와 함께 다 먹지 못할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고기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

무스에 대한 개의 반응은 흥미로웠다. 그림자 그림을 낮추려고 개는 귀를 늘어뜨리고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가끔씩 뒤돌아 브라이언을 쳐다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를 향해 "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옆의 호수로 흘러가는 지류 근처 평평한 장소를 발견하고 강가에 대었다.

"나가," 그가 개에게 말하자, 개는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비버 호수와 연관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카누를 뒤로 빼서 띄우고 물고기

용 화살로 12마리 되는 작은 민물고기들을 막았다. 수련 밑에는 수백 마리 있었다. 스트링거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끈이나 코드) 용으로 끈 조각을 아가미에 꿰어 물가에 두었다.

개를 다시 묶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덤불 속으로 이동했다. 카누에서 보니 강가 위로 멀리 난 다른 개활지가 보였고 하얀 꼬리가 있는 사슴이 늦은 오후 산들바람이 부는 저녁시간에 피이는 파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활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무들과 무성한 버드나무 숲을 지나 개활지를 향해서 가능한 한 조용하게 이동했다.

그는 멈추어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를 지켜 보다 손쉽게 화살을 쏘아 재빨리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 하지 않았다. 훌륭한 먹이었지만 개활지에서도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기회를 붙잡고 싶진 않았다. 브라이언은 활을 훌륭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솜씨가 뛰어났다. 날고 있는 들꿩을 잡은 것,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두 번이나 된다.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활을 능숙하게 다루었는데 그의 눈은 잽싸게 화살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물의 안을 보았고 활이 명중시켜야 하는 지점으로 가는 빛의 직선으로 화살을 보았다. 표적을 보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마음의 연장선으로 거의 도를 닦는 상태로 오직 단 한 가지.

사냥.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얻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죽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화살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는 것이랄까. 크리족은 30-30 소총을 지니고 있는 반면 브라이언은 아직도 활을 쓰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가 화살을 쏘고 합판과 매우 곧은 창 대신에 자신이 만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나서는 옛날 방식을 알고 있는 오래된 친구처럼 그를 생각했고 그런 점들 때문에 그를 존중했다.

무엇이든 보기 전에, 사슴이라도 보이거나 소리가 나기 전까지 그는 개활지해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번에야 말로 대가를 받을 차례다.

개활지에는 네 마리 사슴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우거진 버드나무 끝까지 인치

걸음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움직인 그는 화살촉에 붙은 나뭇잎을 떼고 화살을 시위에 메우곤 준비 완료.

사슴 암컷 두 마리, 수사슴 두 마리, 그 중에 굵은 벨벳피부의 커다란 목덜미살을 지닌 늑다리 사슴과 사슴의 작은 가지 뿔을 덮는 부드러운 혈관이 많은 피부인 벨벳피부의 수사슴이 한 마리 있었다.

늑은 수사슴은 너무 거칠고 뚱뚱하기 마련이다. 암사슴은 최상의 육질을 지녔지만 그들을 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낙찰된 것이 바로 어린 수사슴이었다.

이 사슴은 그가 거기에 있는지도, 숨을 고르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어린 수사슴으로부터 20야드, 어쩌면 채 안 되는 거리. 15야드. 한 마리의 새가 개활지의 다른 쪽에서부터 날아왔는데 급작스럽게 새가 날아드는 바람에 사슴은 놀랐지만 그저 새들끼리 티격티격 다투는 일로 달아나지도 않았다.

수사슴은 한 걸음 떼고, 멈추었다가, 버드나무에 숨어 있던 브라이언에게서 15야드도 안 되는 지점에 서더니 머리를 돌렸다.

‘딱 좋아.’

브라이언은 수렵용 화살촉이 활에 닿을락 말락 할 때까지 활시위를 당겼다. 손가락에 걸린 화살대가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활이 걸린 화살대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고, 어깨뼈보다 약간 위에서 겨눴는데 화살이 날아가다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 확신이 서기 까지 잠시 동안 잡고 있었다.

그리고 발사.

화살은 아무 것도 건들지 않고 버드나무 있는 지점에서 감쪽같이 날아가 눈앞에서 사라지더니 수사슴에게 꽂혔다.

어린 수사슴은 펄쩍 뛰다가 몸통 가운데를 동그랗게 구부리다가 비틀비틀 세 걸음 옮기더니 옆으로 누웠다.

브라이언은 기다렸다. 다른 남은 사슴은 아직도 뛰지 않고 호기심에 찬 듯, 그 작은 수사슴을 구경하고 있었고 브라이언은 말없이 화살이 제대로 맞았는지 보려고 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수사슴의 얼굴이 동쪽을 바라보도록 머리가 하늘로

향했고, 다른 많은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런 것처럼, 사슴의 눈에 있던 광채가 사라지더니, 사슴으로서의 일생을 마감하고 음식, 식량이 되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브라이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더 큰 수사슴은 다가 와서 죽은 채 누워 있는 어린 수사슴의 냄새를 맡았지만 다른 사슴도 여전히 도망가지 않았다.

브라이언은 빈터에서 걸어 나와 보니 온 세상이 날아가 버렸다. 사슴은 빈터에서 나와 순식간에 사라져 이 거대한 세속 세계에서 갑자기 평 하고 없어졌다. 브라이언은 사체가 된 작은 수사슴에게로 갔다.

정말로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활로 수사슴을 콕콕 찢러 보았다. 화살은 완전히 수사슴을 관통해서 반대편 십 내지 십이 피트 떨어진 풀밭 위에 있었다. 브라이언은 화살을 집어 들고 손가락으로 피를 닦아 내고 털이 뺏뺏하게 잘 서게 하기 위해서 털에 남아 있던 피를 털어 냈다.

그리고 나서 사슴의 목을 따서 몸 안의 피를 빼내고 질질 끌면서 야영지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보통 사슴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개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 특히 심장과 간은 개에게 주려는 것이었다.

야영하고 있는 장소까지는 400 야드로 멀지는 않았지만, 우거진 덤불숲을 통과해야 했다. 사슴을 끌면서 갈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야영지에 도착하자 개는 징징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물을 끓이려고 냄비를 올려놓았다. 그도 목이 몹시 말랐고 오래 동안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모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는 드레싱 (모피의 무두질. 원 모피에서 여분의 털이나 지방을 제거하고 약품을 사용해, 본래의 모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털 모양과 반들반들한 광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 을 하고 가죽을 벗기며 사슴고기를 자르는 작업을 하려면 빛이 필요할 것이다.

“거창한 식사,” 그의 칼과 돌을 꺼내면서 개를 향해 말했다.

“오늘도 내일도 거창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여기에 머물며 먹을 거야.”

개가 매우 열렬히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보아 개는 배가 고파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전적으로 그의 말을 수긍했다.

## 8장

하지만 아침에 브라이언은 마음을 달리 먹었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 .

사슴의 가죽을 벗겨 내어 나중에 펼치려고 돌돌 말았다.—이렇게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개는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심장, 간 그리고 폐 부위를 먹어 치웠다. 족히 오 파운드가 되는 분량이었다. 그리곤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까지 모조리 씹어 먹었다. 한쪽에선 브라이언이 남은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있었는데 두 뒷다리와 두 앞다리며 등뼈를 따라 나눈 고기 부위가 있었고, 그 중 안심은 최고의 고기 부위로 이 사슴에서는 양이 적었다.

어디에선가 읽은 내용 중에 늑대들은 한 끼로 20 파운드어치의 고기를 해치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 개야말로 거의 그 수준에 가깝다고 할까. 계속해서 먹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날고기를 조각내서 개에게 던져 주었는데 아무래도 개의 위가 매우 커진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개의 다친 피부를 잡아당기고 상처를 열 생각에 걱정이 되었는데 개는 여전히 먹고 있었다.

불가 옆에 꼬챙이를 달아 익혀 먹으려고 고기를 매달아 안심 부위를 먹었는데 먹어 치운 게 삼 파운드는 될 것이다. 그 다음엔 앞 어깨살을 구워 일부를 먹었는데 브라이언이 개에게 고기를 건네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먹었다.

그리곤 돌처럼 떨어져서 잠들었다. 머리를 땅에 부딪치고, 곤히 잠들더니, 완전히 골아 떨어졌다. 브라이언은 그 모습에 미소를 짓고, 불가에 쪼그리고 앉아 자고 있는 개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낮에 개를 살피다 보니 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브라이언도 개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깨닫고서는 놀랐다. 개가 앉아 있을 때나 주변을 서성일 때면, 브라이언은 자신도 개를 살피게 되고 반응에 주시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개의 경고를 따르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결속력으로 전 생애동안 이런 결속력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다른 동물, 개와 이런 친근함을 이제껏 느끼지 못했는지 그저 놀랍지만 했다.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었다. 앞으로는 늘 개와 함께 있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쨌건, 개는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 주었고, 이제껏 채워 지지 않았던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며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적용되는지 궁금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새끼 늑대 한 마리를 데려 와서 그를 앗혀 놓고 생각하길, '있잖아, 내 인생은 지금 나아졌어.' 글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처럼, 고대인이 일종의 연대감 같은 것을 인식하고,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 옛날 사람도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놀아줄 개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식용용 개를 생각하고는 몸서리쳤다. 내일 누워서 고기를 먹고 거의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남으면 말려서 육포로 만들 생각을 하면서 불가 옆에 앉아서 잠들었다.

...

동이 틀 무렵, 여명이 비치자, 떠나기 위해 카누에 짐을 실었다. 지금쯤 브라이언이 이끌리는 것은 본능, 감각이라는 것으로, 육감이라고 불렀던 것이지만 현재에는 가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무의식적인 지식에 비추어 정보를 논리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대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맞았고, 그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오늘 아침 무엇인가, 내부의 힘을 깨달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카누에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

북쪽. 생각해 보면, 개가 온 지방이면서 무엇인가 그를 북쪽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은 개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확신하건데 곰이 상처를 입혔다는 점과 단순히 곰이 자신을 해쳤다고 해서 개가 자신의 집을 떠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시급함이 있었다.

만약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만약 아닌* 경우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딱히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가야 한다는 욕구, 시작해 보자는 마음만 있었다.

그래서 카누에 짐을 다 챙기고서 준비가 되었을 때 사슴의 두 다리를 노끈에 묶어 물가 너머 매달았다. 호수와 강가의 서늘함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고기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카누를 강둑 옆 바깥방향으로 밀고서 손

짓으로 개에게 타라고 할 때는 해가 나무 꼭대기 너머 있어서 등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며 노를 저어 호수를 건넜다.

마음속에 계획이란 게 있다면 크리족 캠프를 찾아내어 그들에게 근처에 다른 뒷사냥꾼들이 있는지 그들이 꿈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 한, 카이-가-다우쉬를 보게 되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것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행복해하던가 최소한 옛 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에 기뻐 하기는 커녕 내내 노를 더욱 세게 밀어 당기고 있었다.

허우적대고, 마음은 심란했는데, 사슴 두 다리를 짝 벌려 매달은 채 노를 저으니 카누의 속도가 느려져서 웃음도 나지 않았고, 행복한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노를 더욱 더 세게 앞으로 뺐었고 카누가 지나가는 곳을 따라 물살을 헤쳐 나갔다. . .

호수의 끝. 다른 비버 댐이 나타났다. 댐 너머, 짐을 다시 챙기고 물가로 되돌아가고 카누 속에는 개가 있었고, 물살을 가르고 앞을 보면서, 항상 앞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카누만 밀어 당겼다.

호수의 끝. 비버 댐. 늪지를 지나 개울, 더 많은 댐들, 그것들을 지나 더 많은 일, 노를 저었고 또 저었고 아직까지 다른 호수에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대개 해 왔던 대로, 아직까지 햇빛이 비추고 있었다.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카누를 멈추지 않았다. 약간 각이 진 개활지에 카누를 대고 나서 어둠 속에서 나무를 찾느라고 비틀거렸는데 물을 끓일 준비를 하고 스투를 만들 고기 조각을 잘랐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어두웠지만 더 많은 나무를 모아다가 최대한 빨리 물을 끓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웠고 불가에서 매일 하는 기어 점검도 했다.

일을 끝냈을 땐, 스투가 이미 다 끓어 있어서, 수프를 마시고, 고기를 먹고 남은 뒷다리를 개에게 먹이고 난 다음 누워 휴식을 취했다.

노질을 열심히 해서 피곤했는지 몸을 웅크렸다. 잠은 쉽게 들 수 있을 테지만 풀밭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궁금했다. 캠프가 위치하는 장소대로 라면 30마일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이 평탄하고 물줄기가 꼬불꼬불해서 긴 여행 시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오늘

거의 30일 마일 지점까지 왔는데도 큰 호숫가에 당도한 것 같지는 않았다. 북쪽까지 반마일이 안 되어 어느 지점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두 마일 노 저어 가야 하는지 그는 빨리 알고 있었다.

개는 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밥을 먹고 나서도 그저께 저녁처럼 자지도 않고 편하게 누워 있지 않고 대신 브라이언 옆에 앉아, 거의 그에게 기대어, 어둠 속을 응시하더니 간헐적으로 나지막하게 북쪽을 향해서 울부짖었다.

‘거기엔 무언가가 있어. 이 개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상처를 낸 것이 확실하고 개가 바라보는 모습, 어둠 속에서 보려는 것, 냄새를 맡으려고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소리라도 들으려고 귀를 쫓긋 세우는 모습을 보니, 뭔지 모를 정체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브라이언은 벌레 쫓는 연기를 내기 위해 석탄 위에 나뭇잎을 얹고 플라 플리스 소재의 목까지 오는 스웨터 외에 자신을 지켜 줄 보호막 없이 땅위에서 잠들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서, 불을 다시 지피고, 마실 물을 끓이고 약간의 고기를 개에게 먹인 뒤 카누 안에 들어가 첫 아침 해가 비추자 노를 저었다.

처음에는 온 몸이 뻗뻗하고 등이 아팠지만 호수가 약 일 마일이나 되고 끝에 다다를 때쯤엔 뻗뻗함도 가시고 노를 젓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더 많은 비버 댐들, 개울들, 다른 호수, 다시 일련의 댐과 개울가와 습지 그리고 변화.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다. 무엇인가 달라졌다. 같은 물가, 같은 카누, 같은 방법으로 노를 저었지만 주변은 달라져 있었고, 돌출부 아래 호수기슭을 따라 이동할 때에는 근처 숲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가 더욱 들리지 않았고, 작은 움직임도 예전보다 줄었다. 전에만 해도, 항상 무엇인가 일어났는데, 일종의 자연의 조짐이랄까, 그런데 여기 . . . 변했다.

전에 이런 고요함은 있지 않았다. 카누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고요해지지 않는다. 전에 카누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수 시간이 지나도 무스한 마라도 얼씬 거리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그들을 보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새도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새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에 인간의 흔적이 있었다. 점점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 마일 지나자 지금까지 지나온 개울이 넓어져 북쪽으로 연결된 큰 호수로 통하는 얇은 입구가 되었다. 그 개울은 고작 오 마일 정도였는데 입구로 들어서자 좌우로 급격하게 넓어져서 오 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좁아지는 것 같았다.

호수는 화살촉 모양으로, 거의 닳아 있었고, 오후 더운 열은 안개 속에서도 끝자락에 커다란 섬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곳이 바로 친구들이 야영했던 호수였고, 노질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슴 다리를 치우고 섬을 향해서 노 젓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에게 다정하게 대해 준 점에 대해 보상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마치 운명 같았다. 산들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고, 구름이 끼더니, 순식간에 바람으로 변해, 강한 바람이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다. 여기가 시간당 삼마일 혹은 때로는 사 마일씩 노를 저어 오려고 했던 곳으로 지금은 속도가 거의 일마일도 안 되게 떨어졌고, 파도가 뱃전 너머로 튀기기도 했다.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강가에 다가가니, 파도가 잦아들고 더 이상 물이 뱃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어서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여행이 한 시간도 채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섯 시간 그것도 열심히 밀고 당겨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고기를 먹고 물을 마셔 속이 든든해 힘이 좋았다. 시간당 일 마일에 4분의 3지점까지는 가야지 마음먹고, 속도를 유지했다. 네 시간 후에 섬까지 고작 1.5 마일 남았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점들이 뇌리를 스쳐 갔다.

‘호수를 건너는 내내, 섬에서부터 곧바로 그를 향해 불었는데도, 아직까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섬에 친구들이 머물고 있었다면, 요리하고 끓일 때 나는 불꽃 정도는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냄새도 맡지 못했다.’

‘최소한 잠깐 동안 흠 풍기는 장작을 땀 연기도 없었다. 바람은 섬에서 그를 향해 바로 불고 있었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는 . . .’

이젠 네 발로 서서,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크게 킁킁거리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섞였고, 귀를 증긋이 세우다가 내리고, 들으려고

다시 세우고, 숨고, 그러다가 다시 귀 기울였다.

‘공격적인데 근심거리가 있는 걸까?’

브라이언은 잠시 멈추고 노를 젓지 않는 순간에 앞으로 나가는 행동을 취하면서까지 어떤 것에 이끌려 손을 뻗어 화살통에서 수렵용 화살촉을 꺼내 뱃전 너머에 놓았다.

‘이런 등신,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그래도 여전히 곁에 활을 두었다.

섬을 향해 세차게 밀면서 다시 노를 저었고, 개는 징징거리고 으르렁 거렸다.

그저 바라건대, 브라이언이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이 피웠던 연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 9장

처음 드는 생각은 자신만큼이나 친구들도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친구들이 도시로 되돌아가서 여기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반갑게 맞이하러 나와서 짚어대는 개 한 마리도 없었고, 섬에는 어떤 소음도, 소리도, 심지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없었다. 카누를 육지로 끌고 와서 친구들의 카누로 보이는 것 중 하나 옆에 두었다.—두꺼운 유리—길이가 18피트인 육중한 물체가 선체를 관통했었다.—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카누에서 육지로 뛰어 내린 개를 당겨도 곁을 떠나지 않고, 강가로 달려가지도 않았다. 카누를 선체에 묶는 내내, 그의 다리를 내리 누르면서 옆에 서 있었다.

활을 집어 들고 등에 화살통을 짊어 진 채 시위에 수렵용 화살촉을 메기며 생각했다.

‘좋아, 이게 다 미친 짓이야. 친구들이 활 쓸 준비를 다 갖추고 걸어가는 자신을 본다면 날 두고 놀려 대겠지’

친구들의 카누를 정박해 둔 해안가에서부터 길이 위로 굽어 캠프지 까지 약 50야드는 되어 보였고 그들이 껍질을 벗기지 않은 15피트짜리 사각형 통나무로 꼭대기를 만들고 물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마룻대를 방수포로 덮은 오두막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좋아, 그들은 가고 없어. 그건 안 됐지만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 .’

오두막집 문은 열려 있었다. 문은 부드러운 소나무에서 자른 세 개의 투박한 널빤지로 가죽돌쩌귀에 매달려 있었다. 오두막에서 20야드나 떨어져 있었을 때도 이만큼 볼 수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문을 열어 둔 채 나갔을 리 없었다.

개는 멈추더니, 콧구멍을 벌름 거렸고, 굵은 등줄기를 타고 등에 난 털이 모조리 곤두선 채, 낮고, 일정한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브라이언은 활을 당기는 세 손가락을 활시위에 얹어 활을 당겨 쓸 준비를 한 채, 오두막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그러자 냄새가 훅 끼쳤다. 연기도 아니고, 장작 연기도 아니고, 피 냄새로 사향 냄새가 나는 부패한 피와 살점이 썩는 냄새였다. 다시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니 고약한 냄새가 풍겨 왔다. 주변과 위아래를 동시에 살피고, 더 잘 들으려고 입을 열고 숨을 죽였는데, 들리는 것은 다름 아닌 파리 소리였다.

‘괜찮아, 암 괜찮고말고. 친구들이 고기를 여기에 두고 떠났고 무언가가 오두막 집에 난입해서 덤석 먹어 치우는 바람에 파리들이 꼬이고. . . 그리고. . . 그리고 . . .’

‘모든 게 잘못 되었어. 매우 잘못 되었어.’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강렬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 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은 온통 달아나서, 이 장소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었지만 오두막집 내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가 옆, 팔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안에 누구 없어요?” 그리고 똑똑 두드리며, 더 큰 목소리로,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계속 웅웅거리는 파리 소리뿐, 다른 소리는 나지 않자, 불안하게 활시위를 더듬으며 잠시 서 있다가 심호흡하고, 숨을 죽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없었다.—빛이라고 해봐야 문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고 희미한 빛이 방수포를 통해 비치고 있었다.—문가 안에 서 있던 잠시 동안 갑자기 어두워서 눈이 먼 것 같았다.

한쪽으로 서서 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렇게 해서 눈도 어둠에 서서히 익숙해지게끔 했다.

“세상에 . . .”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오두막 안은 난장판이었다.

자루들, 상자들, 침낭들이며, 잠자리, 올가미, 돛, 비상용품들은 찢어져 흘러 나왔고, 사방에 널 부러져 있었으며 찢겨진 것도 있었고, 쓰레기 더미처럼 쌓인 채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 것일까, 비행기 안에 있나, 어쩌면 곰이 오두막에 쳐들어 왔을지도 모르지.’

실제로 그는 무엇이든지 찢을 수 있는 곰 발톱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밀가루 부대에 난 베인 자국을 보았다.

‘하지만 아니야, 그게 그다지 쉽지 않다구.’

그것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좀 더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좀 더 무엇인가 있어야 했고, 바로 그때 처음에 그가 놓쳤던 것을 보았다.

‘이놈의 파리들.’

여기저기서 파리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파리들은 모두 찢어진 침낭이 가리고 있는 한 쪽 구석 뒤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파리 소리는 그를 헛갈리게 했다.

브라이언은 숨을 참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한쪽 구석에 있는 뜯겨진 침낭에 손을 뻗어 걸어 보니 시체였다. 사람 사체가 웅크린 채 한 쪽 구석에 쳐 박혀, 가려져 있었는데, 그는 바로 카이-가-다우쉬의 아버지였다. 데이비드는 멍개지고, 얼굴은 뜯긴 채였고, 목은 찢어져 안이 보이고 한 팔은 떨어져 몸통에 매달려 있었고, 위장은 뜯어져 속이 흰히 보였다. . .

“아!”

브라이언은 몸을 돌려 즉시 토하다가, 그를 뒤쫓아 오두막에 들어선 개와 부딪힐 뻔 했다. 개는 죽은 남자를 보더니 대놓고 으르렁대고 울부짖다가 칭얼거리기도 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 .”

서서 속의 것을 토해 내고 본 것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 말고는 생각할 수도, 반응할 수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럴 리가 없어. 실제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을 리 없어. . .’

뒤돌아보니 데이비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구름처럼 파리 떼가 몰려들더니, 브라이언의 머리는 자동적으로 방금 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참기 힘든 것들이 눈앞에 보였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한쪽 구석에 죽어 있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사실이였다. 그는 거

기에 있었고, 처참하게도 갈가리 찢겨져 있었다.

‘곰이 왔다 간 게 분명해. 곰, 떠돌이 곰이 오두막에 갑자기 들어와서 공격하고 데이비드를 제압한 후 그를 죽인 것이다. . .’

그는 싸웠거나 싸우려고 했다. 시체 옆에 레버가 당길 수 있게 열려 있는 채로 30-30 형 소총이 있었다.

‘데이비드는 장전하려다 곰이 빨리 덮치는 바람에 쓸 시간이 없었다. 아니면 총이 구석에 있어서 곰이 불쑥 들어와 데이비드가 집으려고 하자 곰이 먼저 그를 덮친 것이다. .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 데이비드의 부인, 앤, 그리고 어린 오누이 동생. 그리고 수잔. 카이-가-다우쉬. 오 세상에나, 이런, 그들은 어찌 된 거지?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데이비드에게서 눈을 떼고—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살필 것이었다. —종이와 가방과 잠자리들을 뒤집으면서 오두막 안에 있는 나머지 쓰레기를 훑어보았다. 다른 시체는 없었다.

‘그러면 남은 곳은 바깥이다. 데이비드는 나중에 보고, 지금은 밖을 살펴보자.’

흔적이라도 있어야 했다. 너무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놓친 것이 있었다. 표시나 자국이 남아 있어야 했고, 바깥에 있자니, 오두막 문까지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호수가로 가는 단단히 다져져 있는 오솔길 옆으로 부드러운 진흙 위에 뚜렷하게 곰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큰 곰이었다. 발자국이 육인치는 되어 보였고 진흙이 퍼져 있는 모양을 감안해 본다면 곰이 500파운드 이상 무게는 나가야 했다.

‘오두막집 쪽으로 난 자국들은 들판을 파낸 것으로, 마치 곰이 쳐들어가기 위해서 뛰어 다닌 것 같았다. 이걸 말이 안 된다. 또 곰의 것으로 보이는 자국을 따라 오두막을 향해 나 있는 장화신발자국도 보았다. 이것이 더욱 설득력 있었다.’

곰이 공격했을 때 데이비드는 밖에 있었고 오두막집으로 달려 가 그의 소총을 집으려고 했다. 손아귀에 들어왔다. 소총을 잡은 손은 레버를 당겼지만 곰이 그를 쫓아 와, 바로 그를 덮쳐 죽이고 오두막을 헤집어 놓았다.

‘그럼 앤과 카이-가-다우쉬는? 그들도 밖에 있었던 걸까?’

오두막에 난 자국들은 더욱 그럴 듯하게 가깝게 모여 있었다. 자국에서부터 출발해 소총을 생각하면서 멈추어 서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데이비드는 권총에 익숙하지 않아서 꿈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더라도 빗맞혔을 것이다. 수렵용 화살촉은 동물을 명중시킬 때 보면 놀라운 무기였다.

돌아서서 활을 가지고 천천히 걸어 가다가 얼마 안 가 멈추고 주변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데이비드 사체의 상태와 상처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며칠 전 일이라고 생각했다.

“앤은? 수잔은?”

여러 번 그들의 이름을 불러 보았지만 이런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처음 캠프 장소에 오면서 소리쳐 불렀을 때 친구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린 남자애와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들마저 죽은 것은 아니겠지.’

개집. 저기에 서너 마리 개가 있었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짧은 사슬로 묶어 놓아서 개들이 장비들을 갈기갈기 찢지는 않았다. 꿈의 흔적들이 처음에 난 곳에서 다시 개집으로 나 있었다. 세 마리의 개는 상처가 많이 나지 않고 그곳에 죽은 채 누워 있었다. 네 번째 사슬은 찢어진 나일론 개목걸이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개를 뒤돌아보았다.

‘네 번째 개가 너니?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런데 앤과 수잔이 여기에 있었는데도 도망친 거니? 어린애들은?’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제발 아니야, 아니지, 더 이상, 지금은 아니야. . .’

개집 왼쪽에 있는 덩불 쪽으로 곰발자국이 나 있었고 자국을 따라서 가보니 마치 꿈이 무거운 뭔가를 질질 끌었던 것 같은 미끄럼 자국이 있었다.

안 돼. 제발 안 돼 . . .’

자국을 따라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자국은 멀리까지 미치지 않았다. 덩불에서 4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일부분 물어뜯기고, 엉덩이와 허벅지는 없어지고, 얼굴은 하늘을 향한 채, 검은 머리카락으로 머리가 가리고, 남은 몸통은 나뭇잎

과 먼지로 뒤덮이어 마치 나중에 안전하게 묻히려는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 시체를 발견하였다.

‘제발 아니길 . . .’

아팠지만 이번엔 토하지 않고 대신 시체 머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보니 바로 수잔의 어머니인, 앤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뜯기진 않았지만 매우 세계 부딪힌 것처럼 머리 각도가 이상했고, 목이 부러져 있었다.

뒷걸음치고, 갑작스럽게 마음이 약해져서 시체 옆에 잇는 풀밭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수잔과 다른 동생들에게 닥친 일에 대해 알았을 때, 이후에 그가 처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듯이 일어서서 시체를 두고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시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추적모드로 바꾸고 흔적을 찾아보았다. 섬과 강기슭 사이에 있는 물가는 매우 얕아서, 깊이가 두 피트 넘지 않아, 곰이 어디에서 헤치며 걸어가는지 어디를 통해 섬 강가로 들어오는지 재빨리 알아냈다. 축축한 흙속의 거대한 자국들과 풀속에 진흙이 묻은 자국들하며, 곰이 맡았을 개고기, 물고기와 비버고기 냄새들은 개와 개집 쪽에서 났을 것이고 곰은 낮은 개암나무 덤불을 헤쳐 발자국을 낸 것이었다. 고기냄새들은 수마일 미풍과 함께 풍겼을 테지.

마음속에서는 서두르고, 달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 다니길 원했지만 브라이언은 억지로 침착해지자고, 신중하게 행동하자고 스스로에게 당부했다.

곰 자국은 일정하게 나 있었는데, 개암나무를 걷어내 개가 그를 보고 짚어 될 때까지 그저 걸어 다녔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개집 옆으로 데이비드와 앤으로 보이는 하나는 큰, 하나는 약간 작은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고, 움푹한 양동이가 있었다. 그들은 개에게 먹이를 주던 중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서 있던 개암나무 덤불 선을 따라 10야드 안 되는 거리에서 30피트 되는 곰이 성큼성큼 세 걸음 내딛더니 그들을 덮쳤다.

최대한 이초간의 눈 깜짝할 사이에, 브라이언은 그들 위에서, 현장의 장소에 있었다. 개들은 비명소리처럼 짚어대고, 곰이 앤을 향해 일격을 가하자, 브라이언은 그녀의 몸이 어디에 맞았는지 볼 수 있었고, 이어 데이비드는 오두막안에 있던 권총에 그의 유일한 희망을 담고서 뛰어가고 있었고, 브라이언이 데이비드

를 쫓아가자 곰 발자국은 방향을 선회하여 땅에 구멍을 내면서 데이비드가 가는 쪽으로 나 있었고, 그리고 오두막집에서 나머지 일이 벌어졌다. . .

이후 개집으로 난 좁 발자국으로 봐서 그곳에서 개를 죽였으리라. 한꺼번에 모두, 그중 한 마리는 브라이언과 함께 있지만, 그리고 나서 더 많은 발자국들, 곰 흔적들이 앤의 시체 주변에 남아있고, 곰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덤불속으로 앤을 질질 끌고 지난 간 자리엔 미끄럼 자국이 있었다.

다른 새로운 흔적은 없었다. 개집 옆으로 어린이들의 흔적이나 개집에서 오두막집까지도 어떤 자국도 나 있지 않았다. 수잔의 것으로 보이는 표시도 없었다. 새로운 흔적은 전혀 없었다.

수잔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보러 도시로 간 것일 수도 있다.

공격 지점과 오두막을 사건의 중심으로 두고 원을 그려 추적해 가기 시작했는데, 덤불들을 고리모양으로 감고,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다가 각 고리모양에서 사 피트 가량 밖으로 떨어져서, 골똥히 바라보다가, 각각의 나뭇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열 번째 고리의 풀잎사귀에서 멍청하게도 단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호수 위로 난 길 옆으로, 누군가가 걸어 간 듯한 브라이언보다는 몸집이 작고, 데이비드보다도 작은 질질 끌고 걸었던 자국이 두 개 나 있었다. 갑자기 멈추고 미친 듯이 호수 기슭으로 내달렸고, 카누를 강둑에서 밀어내던 지점에 키가 큰 풀이 이상한 각도로 누워 있었고, 미끄러진 자국이 나 있었고, 그녀가 노를 뒤집어 강가에 부딪치는 바람에 카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카누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노가 없었고 그녀의 손을 사용한 게 틀림없었다.

거기, 옆으로 곰이 물가로 내려 온 곰 발자국이 더욱 많았고 호수기슭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거리를 그녀가 타고 있는 카누를 따라 갔을 것이다.

질질 끌린 자국 옆 지면 위에는 자그마한 2쿼트들이 양동이와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나무딸기가 사방으로 흩어져있었다.

‘수잔이다.’

더 작은 흔적도, 어린애들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나무딸기를 따러 물가를 따라 카누를 따라 건너갔고 곰의 공격하던 시간에는 현장에 없었다. 카누가 두 개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자신의 무지함에 놀라 순간 움찔했다. 물론 그들은 두 개의 카누를 갖고 있었다. 모든 장비와 사람들의 머릿수로 봐서는 한 배로 이동할 수 없었다.

수잔은 나머지 다른 카누를 타고서 맞은편 물가나 섬의 반대편 끝에 나무딸기를 따러 갔다. 곰이 사람들을 먹어 치우고 난 후나 전에, 수잔은 돌아왔지만 곰의 공격은 이미 끝난 후로 곰이 등장으로 그녀는 놀랐고, 아니지, 그녀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녀를 보러 가서 카누까지 그녀를 뒤쫓아 갔고 그녀는 물가에서 빠져 나갔다. 처음 브라이언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흙이 있는 강 언저리 남쪽으로 곰 발자국이 상당한 거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나 있었다.

그래서.

곰은 공격했고, 아마도 앤을 먹었겠지만 여전히 주변을 배회하다가, 오두막 안을 여기저기 뒤지고 있을 때 수잔은 딸기를 따고 돌아왔다.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큰 소리로 외쳤겠지, 곰이 그녀의 소리를 듣고 쫓아 간 거야. 다행히 그녀는 카누 근처에 있어서 물가에 들어 왔다 다시 나가서, 곰이 그녀에게 오기 전에 저 멀리 깊은 호수로 사라졌겠지.

재빠르다. 그녀는 빨랐다. 곰은 코너를 돌고 나서 그녀의 뒤를 밟지 않았다. 이 점이 브라이언이 처음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위로 난 곰의 발자국을 볼 수 없었는지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녀가 이번에도 그를 이겼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는 겁에 질렸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훨씬 최악인 것은 그녀가 그녀의 부모님에게 벌어진 일을 모른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

파리가 알을 까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으로 보아 이삼일은 되었는데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브라이언은 두 동생의 것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도 보지 못했고, 곰이 공격하던 날 근처에 그들이 있었다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는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곰이 수잔과 어린 동생들을 잡아 어디론가 그들을 끌고 간 걸까?’

“제발,” “나와 함께 있어. . . .” 그는 개에게 말했다.

섬의 해안선 아래로 잦 걸음으로 나아갔고, 개는 조금 앞서 남쪽으로 가고 있었고, 곰 발자국은 강기슭을 따라 그 앞에서 끊겼다. 버드나무와 개암나무 너어 물가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었다. 간간히 곰의 자국들은 물가를 향하다가 다시 되돌아 왔다. . . .

세상에, 곰은 수잔과 놀고 있었다. 그녀는 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안가를 따라 카누를 몰다가 섬 반대편으로 캠프지에 돌아왔다. 반면에 곰은 그녀에게 장난을 치면서, 그녀를 놀려 대고, 그녀가 해안가에 거의 이르렀을 때면 그녀를 향해서 달려 나갔다.

섬 곳곳에서, 들어 왔다 나가면서, 그녀는 중심 해안가를 향해서 손으로 노를 저었을 것이다. 브라이언이 얇은 개울가를 걸어 넘으면서 곰도 그녀를 쫓아 따라 내려갔을 물가를 보았다.

‘100여 야드 쯤 갔을까?’

곰이 놀이가 지겨워 섬 방향으로 이동하더니, 숲 속 위로 더 단단한 지면과 촘촘한 풀이 자라는 곳으로 가 버려 브라이언은 거기에서 곰의 흔적을 놓쳤다.

‘좋아, 그러면 도대체 왜 그녀는 섬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아니면 더 나은 질문을 던지자면, 그 곰은 왜 해안선을 따라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던 걸까?’

브라이언은 두 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첫 번째로, 그녀는 해안에서 멀리 벗어나, 오로지 양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호수가 멀리 갔지만 카누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만약 바람이 불었다면, 그게 약풍 이었더라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을 것이지만 만약 그녀가 운이 좋게도 곰에서 멀리 떨어진 호수 밖으로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다. 그녀가 운이 없었으면, 바람이 카누를 해안가로 오게 하는 방향으로 불었을 것이다. . .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녀가 이 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 손으로 노를 젓고, 물을 튀기고, 손을 허우적대고, 바람을 거슬러 이동해 보려고 해도, 이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잡음을 만들어내 본 들, 곰이 아마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이 섬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그녀는 호수가의 수심이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거나, 혹은 바람이 그녀를 데려다주었거나, 압도적인 북풍이 밤새 불어 그녀를 호수의 남쪽 끝에 있는, 브라이언이 지나 왔던 넓은 습지와 버드나무와 습지에 데려다 주었을 것이다.

북쪽으로 오는 도중에 그녀로부터 멀지 않은 곳을 지나쳤을 수도 있다. 혹은 그녀는 동쪽에 있는 물가까지 바람에 실려 왔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그녀가 있을지도 몰라. 노가 없다면, 그녀는 카누를 걸고 북쪽으로 다시 물 수 없을 것이고, 무기도 없이 물가를 걸어 다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었다.

멈춰서, 해안선과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개가 울부짖는 소리는 그쳤고 털을 내려뜨린 채였다. 곰은 근처 어디에도 없었다.

돌아가, 카누를 타고, 수잔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북쪽으로 가려고 애쓰면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호숫가 남쪽 어딘가에 있어야만 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그만하고 되돌아가려는 참이었고 개는 그의 곁에 있었다. 저녁이 오고 있었고 그의 한 쪽에선 앤과 데이비드를 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잠시 미뤄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잔을 찾아야 했다.

어린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다.

곰이 오기 전에.

. . .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은 그녀를 발견했다.

브라이언과 개는 숲가를 경계하면서 물가를 한눈에 쏙 훑어보고 호수 중심을 향해서 응시하면서 해안선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동쪽 해안 호수 아래 사마일 지점되는 곳에 있었다. 호숫가에 있는 얇은 개울에 카누를 질질 끌고 있었는데 만약 그녀가 곰을 보았다면 카누에 올라 타 밖으로 밀 수 있었다.

개를 바라보다 익숙한, 사랑했던 무언가, 누군가의 냄새를 포착하여 코를 벌렁거리고 있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보기도 전에 수잔을 먼저 발견했다. 수잔은 해안선에 있는 짙은 단풍잎에 골몰해 있었다. 그녀가 100야드 정도쯤 왔을 때, 그가 불렀다.

“수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랐는지 숨으려는 듯 카누 안으로 뱅크 들어가 버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녀는 공포와 피곤으로 반쯤 낮이 나가 있었다. 이해가 되었다. 자신도 그런 공포감을 느꼈었고, 그녀는 아마도 이삼일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야, 브라이언. . . .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 가족들과 한동안 생활했어.

그녀의 카누에 맞춰서 끌어 올리더니 두 개의 카누를 한꺼번에 쥐었다.

“곰 . . . ,”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클어졌고, 얼굴과 팔에는 할퀸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추위와 공포로 이를 딱딱 부딪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웠다.

“곰 . . . ”

“알아. 알고말고. 이것을 걸치고 가서 잠 좀 자. 난 물러나 있을께.”

브라이언은 그의 침낭을 가지고 와서 그녀의 카누 안으로 내밀고 그녀를 안에 덮고 억지로 그녀를 밑에 눕게 했다. 이와 동시에 닻줄을 그녀의 뱃머리에 묶고, 방향을 돌려 그 뒤로 그녀의 카누를 당기면서 노를 젓기 시작했다. 개는 첫 번째 카누에 올라타서는 극심한 피로로 개가 앉아도 못 보고 넘어가는, 개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수잔 옆에 자리 잡았다. 거센 북풍과 칼바람이 불 때 짙은 한밤중이었다. 이런 바람에 맞서 두 개의 카누를 밀어 섬에 대기 까지 다섯 내지 여섯 시간이 걸렸다.

‘좋아.’

그녀는 휴식이 필요했다. 그녀는 아직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고 혹은 짐작만 하고 있을 테지. 그녀가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해 할까.

그녀에게 지금 주어진 휴식이야 말로 하늘이 준 선물일 테지.

# 10장

그들은 야생의 세계 생각이 났다.

처음에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브라이언이 생각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여생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지낼 것이란 걸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동틀 무렵, 섬에 되돌아 왔을 때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 그녀가 자도록 놔둔 채 개를 앞장세우고—개는 지금도 그렇지만 늘 그보다 앞에 섰다. 개털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곰의 자취는 없었다. 브라이언은 담요와 판초(커다란 천 가운데 머리를 내놓은 구멍만 있는 일종의 외투)로 시체를 둘둘 말아 앤을 오두막에까지 다시 데려 오고 삽을 이용해 동쪽 벽 옆에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얇은 무덤을 만들어 두 부부를 나란히 묻었다.

이 일이 끝나자, 조금이라도 오두막을 깨끗이 하려고 했고, 죽은 개들을 야트막한 무덤에 묻고서 카누로 되돌아가 계속해서 호수에서 씻겨 냈다. 그녀가 깨어나 그녀를 붙잡으며 너희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는 전에 끝내야 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아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추측했지만 그럼에도 충격은 컸다. 브라이언이 강둑에 앉아 있는 내내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그의 뺨전 옆으로 개와 그는 약간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우는 동안 손을 잡아 주니 심하게 다친 개가 나타났을 때 그가 느꼈던 것처럼 무기력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흐느끼는 사이, 다른 두 동생, 폴과 로라가 워니펙에 있는 친척집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이었다.

수잔은 새로 만든 무덤가에 가서 판자로 만든 십자가를 각각의 무덤에 세우고 나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브라이언은 일부를 원상 복구시키려고 그녀의 아버지가 누워 있던 지점은 호수에서 떠온 물로 씻어 냈다. 그가 덮개를 벗기지 않았던 잔해 중에서, 그녀는 송신기가 딸린 단파라디오를 찾아냈다. 옆으로 똑똑 두드려 보더니 그것을 선반위에 도로 갖다 놓고 축전지에 그것을 걸었는데 라디오가 여전히 작동했다. 그녀는 관련 당국에 연락하였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브라이언은 일이 너무나 재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연락한 지 세 시

간도 안 되어 비행기 한 대가 호수위로 착륙하더니 조종사, 캐나다 기마 경찰관과 자연 관리원 이렇게 세 명이 나왔다. 그들은 브라이언을 따로 불러내어 구체적인 정황을 물어 보았는데 그녀가 듣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들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오두막집 옆에 서 있었다.

“함께 지낼 친척이라도 있니?” 기마 경찰관이 수잔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니펙에 고모와 삼촌이 살고 있어요. . . ”

“우리가 너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마,” 그가 말했다.

“네가 원하면 우리가 너의 소지품들을 가져다줄게.”

“아니요. 제가 챙길게요.” 그녀는 오두막으로 갔고 경찰관은 브라이언을 돌아보았다.

“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네가 비행기 추락사고 때 살아남은 소년이구나.”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곳을 벗어나고 싶니?”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었다.

“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기마 경찰관은 잠시 동안 브라이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니, 고개를 저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는 자연 관리원을 향해 돌아서더니, “그럼 당신, 당신이 곰을 처치할 건가요?”

관리원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곳엔 곰이 아주 많아요, 10 마일 혹은 15일 이내에 족히 20마리는 있을 걸요. 우리는 어떤 곰을 죽여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브라이언은 그를 응시하고는 말하기 시작했는데, ‘곰들은 흔적을 남겨요.’

곰들의 흔적으로 그 곰을 알아냈다. 그들은 그를 찾아 낼 수 있었지만 그는 혀를 깨물었다. 이 숲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비행기며, 총이며 라디오와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GPS)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이 모든 장치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너무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동물을 이전에 본 적이 없더라도 직감적으로 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냈다. 그들은 곰을 바로 보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보는 것은 체중, 허리둘레, 털 색깔, 유전 정보와 생물학적 언어가 전부일 뿐, 곰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거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알았다. 그는 곰을 알았다. 그가 곰을 찾아낼 것이다.

수잔은 그녀의 물건들로 가득 찬 캔버스 백을 들고 오두막에서 나와 브라이언과 서로 껴안았는데 그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귀에 대고, “너 조심해야 돼. 이번 곰은 다른 곰들과 달라. 그는 사악한 곰 상징물로, 즉 사악한 곰이야. 제발 조심해. . .” 라고 귓속말했기 때문이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그녀를 안은 채,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음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널 보고 싶어. 할 말이 많아.”

그녀가 끄덕였다.

“나도 알아. 너에게 편지를 남겼어, 오두막에 있을 거야. 내 주소랑 전화번호도 거기에 적혀 있어. 기다릴게. 숲 밖으로 나올 때 나를 찾아 줘. . .”

그리고 나서 수잔과 남자들은 비행기 계단에 오르더니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고 조종사는 주변을 돌다가 이륙했다. 순식간에 브라이언은 개가 있었지만 홀로 남겨졌고,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호수와 섬과 숲 . . . 그리고 곰.

‘그 곰은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있었고 틀렸다, 지금은 아니다. 곰이 잘못된 것이고, 멀리 가 버렸다.’

브라이언은 그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곰을 죽일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일이었다.

# 사냥

카누를 남겨 두고 개, 칼, 활과 화살 통, 가벼운 모카신, 민무늬 어두운 색 티셔츠와 가벼운, 진초록색의 풀오버 스웨터를 챙겼다.

성냥과 작은 알루미늄 냄비도 하나 가지고 갔다.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몰랐지만 행색은 최대한 가볍게 해서 이동하고 싶었다.

얇은 개울가를 건너 주요 해안선에 들어서자 멈추어 서서 짙은 진흙을 그의 얼굴과 목에 바르고서 곰의 발자국을 따라 나뭇잎사이로 들어갔다. 나중에 흔적들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시간이 많이 지난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동안 흔적들이 그를 도와 곰에 대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 줄 테니 가능한 그는 오래 붙들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 곰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부드러운 흙에 있다가, 바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반대방향으로 불 때까지 수잔이 탄 카누를 뒤쫓다가 방향을 바꿔 위로 올라가더니, 호수에서 멀어졌다.

설사 개가 브라이언에게 신경을 쓰면서 냄새흔적을 맡기 위해서 연신 코를 땅에 대고 이동한다고 해도 여기에 남은 그의 자국들은 부드러운 솔잎과 뒤섞여 추적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브라이언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 아직도 이 개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곰의 흔적을 놓쳐서 개를 따라가고 한 두 시간 추적이 끊겨다가 다시 알아낸 끝에 다시금 곰의 발자국을 찾게 되자 개를 완전히 믿게 되었다.

일종의 조기-경보 레이더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제 6의 감각과도 같았다. 냄새흔적은 시간이 오래 지났고 곰은 오래 전에 이곳을 왔다 간 상태고, 브라이언은 추격견의 느슨한 태도만 봐도 분간할 수 있었다. 브라이언과 개는 함께 움직였고, 브라이언은 곰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

곰은 게을렀다. 언덕을 오르지 않았지만 대신에 그들이 지내는 곳 주변에 머물렀다. 뒤집어진 통나무, 베어낸 그루터기로 보아선 특징적인 발톱 모양을 하고 있었다. 왼발 발톱이 하나 빠졌고, 오른쪽 발톱 하나는 반쯤 부러졌다. 진흙이나

부드러운 흙 위에 난 발자국에서는 쉽게 읽어 내고 알아 낼 수 있었는데 특히 곰이 쉬거나 자려고 누웠던 바로 이전 장소에 브라이언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했다.

무성한 풀밭에서 곰은 잠자리 만들어 자리 깔로 누웠다. 브라이언은 땅의 감촉이 느껴졌고, 무엇을 보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손길이랄까, 곰의 느낌이랄까, 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 풀밭은 서늘했고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개가 불안해하는 기색도 없어서 브라이언은 옆으로 가서 작은 불을 피워 놓고 물을 끓이고 오두막에 있었던 육포 한 조각을 잘근잘근 씹었다.

마시고, 불을 끄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쉬기 위해 자리 잡았다. 아직 잘 생각은 없었지만 한밤중이 되자 모기도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괴롭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개의 예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쉴 만큼 선잠을 잤다.

날이 밝기 전, 다시 이동하고 있었고, 여전히 개 뒤를 따라 가고 있었지만 한 낮까지 확연히 보이는 표시가 없자 어지럽게 놓인 곰의 발자국을 뒤밟는 것이 별로 득이 없다고 생각했다. 곰이 나타난 곳은 호수에서 사 네지 오 마일 떨어진 곳이고 곰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 그저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곰은 이곳에 머무를 것이고 브라이언은 이곳 지형에서 가능한 한 높은 지대에까지 올라갔다가, 아래쪽에서 사냥하고, 곰을 앞서려고도 했는데, 곰은 언덕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곰이 냄새흔적을 남긴 채, 근처에 있는 낮은 산등성에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동안 개는 머뭇거리더니, 냄새가 나는 자국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약하게 징징거리다가 움츠리는 듯 했는데 산마루로 올라가는 브라이언을 따라 나서며 원래 브라이언 보다 앞장서서 가던 자리로 되돌아갔다. 귀는 쫓긋하게 세우고, 최대한 많은 냄새를 맡을 심산으로 코를 벌름벌름 거리면서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올라가다가 산등성이 꼭대기에 다다를 때쯤엔 속도를 늦췄다. 브라이언은 개의 뒷머리카락과 귀를 보면서, 몇 걸음 내딛고,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개도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의아해하면서 바로 그 때 곰을 보았다.

곰을 본 것이 여태까지 세 번째로, 하나는 작은 암컷, 두 마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한 살배기 새끼 곰으로 그들이 브라이언과 개를 보았을 때 그들 모두 그와 개에게서 달아나서 곰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이동했을 때 그들은 오두막에서의 공격에 가담했던 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진 발톱과 부러진 다른 발톱과 함께 오른쪽 앞발을 어떻게 약간 올리는지, 마치 서명과 같은 것으로, 공격하는 곰의 발자국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새로운 흔적은 없었다. 저녁때까지.

그들은 산등성이를 넘어 작은 언덕에 이르고, 작은 산마루들을 따라 추적해 나가면서, 예전에 넘었던 언덕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꼭대기를 넘어 자신 앞에 가는 개를 보고 그들이 쉬고 주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멈추었던 장소를 보았다. 예전에 자신이 기대었던 오크 나무를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지면에서 사 피트 떨어진 휘어지고 구부러진 갈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는 속삭였는데, 목소리가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들렸는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았어. . . .”

개가 변해서 말하다가 멈추었다. 개는 땅에 대고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고 그녀의 등에 난 털은 갑자기 끝까지 곤두서더니 으르렁댔다.

“뭐야 . . .”

브라이언은 개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땅을 보았다. 부엌토와 풀로 뽁뽁했다.

어떤 것도 읽어 낼 수 없었다. 그는 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숨을 멈추고, 개와 함께 주변의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아서 다시 편편한 지면을 보고 자신의 시간이 지난 자국을 따라 삼 야드 더 간 지점에 하얀 꼬리를 가진 사슴이 지나가는 바람에 풀이 누워 있는 곳까지 갈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 부드러운 흙과 이상한 낚새가 있었다. 완전한 자국이 나 있었다.

크고, 거대한, 빠진 발톱, 완벽한 자국과 금방 생긴.

그것은 곰이었다.

바로 찾아 헤매던 그 곰.

곰이야말로 브라이언을 따라오고 있었고,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를 사냥하고 있었던 말이다.

그 순간, 길고도 길게 느껴졌던 몇 초 동안, 브라이언은 포식자에서 먹이로 강등되었고, 목덜미에서 소름이 돋는 게, 마치 늑대들이 사슴의 냄새를 맡고 사슴이 느꼈을 감정 같은, 여우가 달리기 시작하면 토끼가 느꼈을 . . . 소름 끼치고, 숨이 멎은 듯 했고, 세상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 공포 이상의 무엇인가, 매우 오래된 무엇, 아주 원초적인 마음이 들었다.

곰이 그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곰은 사라졌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이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자니, 냉기와 공포심도 사라졌고, 대신에 더욱 순수하고, 원시적인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더 이상 곰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곰이 그를 쫓고 있어서, 곰은 그에게 올 것이다. 그것도 곧, 머지않아 올 것이다.

지금은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 시간 걸린다면, 한 시간 지나면 어두워지겠지. 나는 여기, 세 시간 전에 here를 지나쳤고, 만약 곰이 나를 뒤쫓아 왔다면, 얼마나 빠른 거야? 나보다 빠른 건 분명한데, 곰이 가까이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틀림없어. 별안간 개를 바라보다가, 개의 머리가 왼쪽으로 돌고, 떨어뜨리고 동시에 방향을 돌면서, 느끼기에, 수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활을 위로 올려, 수렵용 화살촉을 당기려는 순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어 버렸다.

곰이 덮쳤다, 둥글게 말았고, 손바닥으로 내리 쳤다. 활은 그의 손을 빠져 나가, 앞으로 날아가 버리고, 화살은 화살 통에서 쏟아 졌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곰이 조용하더니, 그를 밀치고, 두드리고, 곰이 처음에 공처럼 둥글게 말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게 지금은, 곰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곰은 브라이언을 죽이려고 왔고, 곰은 그를 죽일 작정이었는데도 브라이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브라이언은 칼로 손씨 보려 했는데 곰이 쳐 내는 바람에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팔 양 옆을 치고, 왼쪽 팔을 움켜쥐고 곰이 작은 동물에게 겁주는 것처럼 앞뒤로 브라이언을 내던졌다.

나는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브라이언은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곰이 다시 이길 것이고, 곰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의 짖을 듯한 외침소리가 나더니 곰의 등에 타서 곰을 움켜잡았고, 곰은 몸을 돌려 개

를 쳐내니, 옆으로 20피트 되는 곳에 할 말을 잃은 채, 내동댕이쳐졌다. 다음에는 곰이 브라이언을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 이초가 되었을까, 브라이언은 활에서 멀리 떨어져 땅 바닥에 누워 있었고 화살들은 화살 통 밖으로 나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화살촉 하나를 움켜쥐었다.—왼쪽 손은 소용없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화살을 들고 곰의 가슴 정면을 향해 뛰어 들었다.

놀랍도록 화살이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던지 고작 6인치되는 화살을 보았다.

‘거기야, 이제 됐어. . . .’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곰은 자신의 가슴에 있는, 꽃힌 화살을 부여잡고는 부러뜨렸다. 브라이언은 순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곰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리를 잡고, 그를 끌어 당겼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땅 위에 질질 끌려 다녔다. 그러다가 다른 화살이 보이자 그것을 쥐고 몸을 틀어 곰의 몸 가운데 안으로 그것을 쏘서 넣었다. 그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는지, 곰은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고, 머리 옆으로 그를 세게 놓았다. 브라이언은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덮쳐 오는 어마어마한 곰의 털이었다.

‘좋아, 이게 너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세상의 모든 일이 터널 끝에 보이는 빛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어두워지고 남겨진 것은 없었다.

. . .

소리, 부드럽게 흠쩍거리는 소리. 잠시 동안, 생각하길, 그게 나야. 주변이 온통 여전히 캄캄했고, 그는 이 거대한 어둠 안에서 눌린 채 있었고 잠시 그는 자신 위에 있는, 자신 주변에 있는 곰의 냄새를 맡았다.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얼굴을 활고, 셔츠를 잡아당기고 있는 바로 개였다. 곰은 조용히 누워, 곰이 쓰러진 곳, 브라이언 위에 죽은 채 있었다. 두 번째 화살이 결국에는 곰의 숨을 끊어 냈다.

브라이언은 땅에서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곰에서 벗어났다. 어두웠지만, 그래도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어서, 이른 새벽에 비추는 빛 속에서, 절뚝거리며 그의

왼손을 안으로 부여잡은 채, 나무를 구해다가 불을 지폈다.

불빛이 비추자, 우선 개를 들여다보았다. 원래 바늘땀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개의 머리 끝 너머 4인치 가량 난 새로운 상처가 생겼다. 그 밖에 다른 두드러진 상처는 없는 것 같아서 개를 앉히고선 브라이언은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왼쪽 팔과 다리는 곰에게 물렸지만 크게 찢어진 상처는 아니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탈구되어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삐그덕 소리가 났고 한 차례의 고통을 참고서 제자리에 뼈를 맞춰 놓았다. 무릎을 꿇고서 그의 시야로 색이 흩어져서 보였다.

“오, 이런. . .”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곰이 그를 덮치고, 때리고 물어서 상처가 훨씬 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곰을 향했다. 개는 여전히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면서 시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곰이 꿈쩍도 하지 않고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자, 곰의 다리위에 오줌을 누고, 뒷발길해서 먼지를 곰의 몸에 뿌리고, 그녀의 왼쪽 뒷발에 난 작게 베인 상처를 옆으로 훑고 떠났다.

곰은 죽은 채 누워 있고 브라이언은 개가 했던 것처럼, 승리감, 일종의 도취감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곤 데이비드와 앤 그리고 수잔과 어린 동생들이 일생동안 안고 살아갈 상실감뿐이었다.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감정이 느껴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친구들을 잃은 상실감뿐이었다.

그리고 한 마리의 곰이 있었다.

악당이 아니고, 사악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죽은 곰이었다. 사냥했던 여느 죽은 동물처럼. 곰을 죽였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려 올 수 없었고, 수잔과 그녀의 어린 남매 동생들의 상처를 덜어 주지도 못했다.

그것은 그저 죽은 곰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체를 강까지 끌고 가서 곰을 씻기고, 가죽을 벗겨 내야 할 것이다. 카누를 가져 오고, 캠프 장소로 되돌아오고, 사용할 수 있는 한, 곰이 저지른 일 이후에 곰을 살게 놔두는 것만큼 곰의 고기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았다.

불빛 속에서 활과 화살과 칼과 자그마한 냄비를 찾았다. 냄비는 찌그러졌지만

가장자리를 펴서 쓸 만 했다. 강가까지는 멀지 않아서 물을 가져 다가 끓이고 조금은 개에 주고 자신도 약간 마셨다. 그리고 흙을 끓여 그것을 베인 자국에 발랐다. 한편 개는 머리로 연신 아침 파리들을 쫓아냈다. 다음, 칼을 가져와서 곰에게로 향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 후 기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항상 듣는다. “이번 브라이언 시리즈 책이 브라이언이 등장하는 책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라는 말에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너무나 열광적이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가 오고, 모두가 브라이언의 소설을 원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더 이상 브라이언과 북쪽지방의 숲에 대해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 . . 어떤 식으로든, 브라이언은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의 인물이 되었고 그들은 브라이언에 대해 더 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 . .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제에 관하여 말하자면, 어떤 동물을 악마로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오직 인간만이 진정 사악하고 계획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할 여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곰은 특히, 겉보기에 호감이 가는 대상으로 적합하다. 곰이 보여 주는 진정한 모습은 테디 베어, 곰돌이 푸우 같은 이미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일부 사람들이 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곰과 곰이 가한 공격을 어떻게 바라볼지 잘 알고 있다. 몇 년 전, 영화 프리윌리 (Free Willy)—한 소년이 사로잡힌 범고래가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영화—개봉되었을 때, 나는 라디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중에 물개를 죽이고 잡아먹기 전에 아기 물개를 장난감처럼 앞뒤로 던지면서 노는 두 마리의 범고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가 똑하고 내려졌다. 사람들이 말하길, 범고래는 다정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물고기만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그들은 뉴질랜드 연안에서 물개만이 아니라 이따금씩 돌고래도 잡아먹고, 물개 어미와 새끼 물개는 스쿠버 다이버를 공격했다. 그들은 바다의 늑대로, 늑대가 하는 것처럼, 물개는 죽여야 하는 다른 동물들을 먹는 살인 물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곰에 관해 말하자면, 곰은 귀엽고 영리하고 가끔은 사랑스러운 동물이 맞지만, 동시에 동물을 죽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에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고 먹기도 한다.

나는 자신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 썰매 끄는 개집에 들어가서 개를 죽이는 곰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헐크라고 하는 어떤 개는, 한 밤중에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죽었다. 내 아내는 정원에서 집까지 곰에게 추격당했는데, 거의 그녀는 잡힐 뻔 했다. 퀴시라는 이름을 가진 테리어 개는 그의 목덜미가 내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의 조카가 위스콘신에 있는 한 스카우트 캠프에 가 있었는데 곰 한 마리가 밤중에 그를 텐트에서 끌고 나와 억지로 채어 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돌과 몽둥이로 무장한 열 두 명의 스카우트 단원들이 곰을 공격해서 곰은 소년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년은 수백바늘을 꿰매야 했고, 이후 팔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공격부분에서, 한 부부는 살해당하는데, 부인은 몸의 일부가 잡혀 먹히고, 내가 그것을 묘사한 대로, 거의 정확하게 일어났다. 곰은 부부가 낚시하기 위해서 카누를 타고 들어 온 캐나다의 숲 속에 있는 어느 섬에서 그들을 공격하여 둘 다 죽이고, 여자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먹이로 먹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먹이 감으로 생각하기 싫어한다.—이런 생각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생각이다.—사람들의 오만함과 소위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지 않다는 점을 잊고 지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의 일부이고 일부 동물들—몇 가지만 말하자면, 상어, 열을 내는 모기들, 늑대와 곰—우리를 식량거리, 고기 보급품쯤으로 알고 있지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언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동물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자, 겸손하게 하고, 고통스럽고, 매우 유익하면서 가끔씩은 순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

## 브라이언의 온갖 모험담을 읽어 보세요!

칭송받는 작가이자 뉴베리상 수상자인 게리 폴슨이 독자를 사로잡는 고독과 용기, 그리고 결국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단편 소설을 놓치지 마세요. . .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시면 GaryPaulsen. com으로 방문해 주세요.

"폴슨은 생존 작가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들 중의 한 명이다."

— 뉴욕 타임즈

## 게리 폴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 게리 폴슨

#### WOODS RUNNER

사무엘은 그의 유년 시절을 숲속에서 보내고, 가족을 위해 식량을 얻기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도시나 전쟁의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국경지역에서 지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 (1775-83)이 발발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칩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죄수로 숲을 떠나 끌려가고, 사무엘은 그들을 찾아 적군이 있는 지역 깊숙이 가야만 하는데. . .영국 군대 주둔지가 가는 내내 벌어지는 모험이 펼쳐집니다.

게리 폴슨은 세 권의 뉴베리상 수상작품, The Winter Room, Hatchet과 Dogsong등 젊은이를 대상으로 쓴 책들이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청소년 문학에서 전 생애 업적으로 기념될 만한 에드워드상을 ALA로부터 받는 영예를 안았다. 랜덤 하우스가 펴낸 저서로는 Flat Broke, Masters of Disaster, Liar, Liar, Woods Runners, Lawn Boy, Lawn Boy Returns, Notes from the Dog, Mudshark, The Legend of Bass Reeves, The Amazing Life of Birds, The Time Hackers, Molly McGinty Has a Really Good Day, The Quilt (Alida's Song과 The Cookcamp의 자매편), How Angel Peterson Got His Name, Guts: The True Stories Behind Hatchet and the Brian Books, The Beet Fields, Soldier's Heart; The River, Brian's Winter, Brian's Return, and Brian's Hunt (Hatchet의 자매편), Father Water, Mother Woods 그리고 옛 서부 프랜시스 터킷의 모험에 관한 다섯 권의 저서들. 게리 폴슨은 어른들을 위한 소설과 비소설도 발행하였다. 아내, Ruth Wright Paulsen은, 남편의 몇몇 작품에 삽화를 그린 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는 알래스카에 있는 집과 뉴멕시코의 농장과 태평양에서의 보트에서 보낸 시간으로 나누었다. 여러분들은 GaryPaulsen.com 에서 만날 수 있다.

게리 폴슨은 엄선된 저술활동과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연 여부가 궁금하다면, 랜덤하우스 연설국 rhspeakers@randomhouse.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